

한성대신문

1976년 12월 15일 창간

www.hansungnews.com

2022년 6월 7일 화요일 제579호

지면안내

05 문화
가장 찬란한 순간, '찰칵'

06-07 사진공모전
제16회 사진공모전

09 기획
예방만 외치다 실패한 대학의 성교육

12 사람
기차를 탄 모험가, 강한나 여행작가



▲한성대와 한성대입구역을 오가는 본교 스쿨버스는 18시 30분을 기점으로 운행이 종료된다. 물론 이를 대체할 '성북02' 마을버스가 있지만, 스쿨버스의 공백을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야간 학생은 도보로 지하철역까지 이동하는 실정이다. 김영서(패션 1) 학생은 "학생들이 몰려들면 성북02는 포화상태가 된다. 버스를 타지 못하고 걸어가기도 한다. 학교에서 역까지 충분히 걸어갈 수는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이에 본지는 야간 시간대 편의시설 이용과 관련한 본교 재학생들의 불편함을 알아보기 위해 '야간 시간대 편의시설 이용 관련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중운위의 약속들 지켜지고 있을까

지난해 11월 치러진 '2022학년도 학생자치기구 총선거'에서 당선된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의 임기가 어느새 절반을 넘어가고 있다. 지난 4월 보궐선거를 통해 꾸려진 동아리연합회도 어느덧 다음 학기를 준비하고 있다. 1학기가 끝나가는 지금, 중운위의 공약들은 얼마나 이행되고 있을까. 한성대신문사는 ▲총학생회 ▲총대의회 ▲학생복지위원회 ▲동아리연합회의 공약 이행 상황을 알아봤다. 전반적으로 중운위의 공약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이행 불가능한 공약은 존재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이행 완료된 공약은 총학생회가 2건, 총대의회가 1건, 학생복지위원회가 2건으로 대부분의 공약은 2학기에 이행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는 중운위의 자세한 공약 이행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이행 완료 ▲이행 중 ▲이행 예정 등 3가지 척도로 구분했다.

>> 3면에 계속

김지훈 기자 jizhej@naver.com

>> 2면에 계속

임혜은 기자 hyeeun0115@naver.com

2차 대의원총회에서 학생회칙 개정 및 예산 인준 완료

'2022학년도 상반기 2차 대의원총회(이하 총회)'가 지난 16일 진행됐다. 이번 총회에서는 학생회칙 개정과 일부 학생자치기구 예산안 인준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날 이틀이 가결됨에 따라 선거 시행 세칙(이하 선거세칙)과 감사 시행 세칙(이하 감사세칙) 개정이 이뤄졌다. 또한, 지난 4월 재선거를 통해 구성된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이하 인문예술대) 학생회 ▲창의융합대학(이하 창의대) 학생회의 상반기 예산안 인준도 진행됐다. 모든 안건은 재적 대의원 14명 중 출석한 대의원 11명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된 회칙은 5월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22년도 상반기 감사'에 모두 적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낙산의 메아리에 게재된 '학생회칙(2022)'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거세칙 개정의 주요 내용

- 후보자토론회 신설
- 일부 학생자치기구 선거권자 확대
- 후보자 등록 기준 수정 및 추가

선거세칙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후보자토론회'가 신설됐다. 후보자의 소속에 대한 관심도와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자리를 만든 것이다. 후보자토론회는 출마자 수에 따라 진행 방식이 상이하다. 단선일 경우, 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가 제시하는 주제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경선일 경우, 이에 더해 후보자 간 상호 토론이 병행될 예정이다. 다만 기존에 진행하던 정책토론회는 계속 유지된다. 김산(사회

과학 4) 총대의장은 "정책토론회는 후보자 공약과 관련해 조언을 제공하는 시간이라면, 후보자토론회는 각 후보자가 출마하는 단위에 대해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대의회(이하 총대)와 동연의 선거권자 범위도 확대됐다. 선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선거세칙 제6조 2항에서는 총대 선거권자가 '해당 학기의 대의원 전원'으로 기재돼 있었으나, '해당 학기의 재학생 전원'으로 변경됐다. 또한 기존 선거세칙 제6조 5항에서 동연의 선거권자는 '해당 학기의 동아리에 가입 및 활동하고 있는 재학생 전원'으로 제한돼 있었으나, 이 또한 '해당 학기의 재학생 전원'으로 확대됐다. 김 의장은 "(후대 총대가) 대의원에 지인을 배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면서 "동연 역시 각 동아리 회장이 선거권자 명단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 명단 조작 우려가 제기돼 선거권자 범위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등록 자격 기준도 일부 수정됐다. 총대 정·부의장에 대한 선거권자 범위가 확대된 것에 발을 맞추기 위함이다. 선거세칙 제8조 2항의 2에 따르면 총대의 정·부의장 후보자 등록하기 위해서는 '대의원 5%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했다'. '회원 5% 이상의 추천'을 받는 것으로 변경됐다. '회원'이란 본교 재학생을 의미한다. 동연 정·부의장 후보자 등록 자격 조건 역시 동일한 이유로 추천인 범위가 동아리 회원에서 재학생으로 바뀌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재직 활동을 하는 미래플러스대학(이하 미래대) 학생도 단과대학 학생회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선거세칙 제8조 1항의 4에서는 학생자치기구 선거 후보자 자격 기준으로 직장 활동을 하

지 않는 것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단, 미래플러스대학은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을 추가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아학인 미플대 소속 학생도 단과대학 학생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선거세칙 제8조 1항의 5의 신설에 따라 모든 학생자치기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학생회비를 필수로 납부해야 한다. 학생회칙 제4조 3항의 2에서 학생회비 미납자는 ▲총학생회 ▲총대 ▲학생복지위원회 ▲동연 등 활동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선거세칙 제9조 1항의 6도 신설됐는데, 후보자 등록 시 중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학생회비 납부 확인서'가 추가됐다. 김 의장은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회비가 예산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학생의 선거 출마는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단과대학 구조가 변동됨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됐다. 중앙자치기구와 각 단과대학 학생회 후보에 대해 다루는 기존 선거세칙 제8조 2항에는 상상력인재학부 정·부학생회장 후보자 자격 조건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상상력인재학부가 창의대 소속 학부로 변경됐기에 해당 내용이 제거됐다.

감사세칙 개정의 주요 내용

- 수집 감사자료 일부 변경
- 용어 삭제 및 수정

감사세칙 제20조 17항도 수정됐다. 해당 조항에서는 '일반 학우 및 학외의 단체 또는 타 학교, 개인과의 거래 시 급전수령자의 신

분증 사본, 이름, 연락처, 서명, 금액, 계좌 및 수령 방법'을 감사자료로 수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이들 중 '학외의 단체 또는 타 학교' 부분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감사대상에 해당하는 학생기구는 일반 학우나 학외 개인과의 거래 시에만 신분증 사본을 수집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학외의 단체나 타 학교와의 금전 거래는 신분증 사본 외에도 나머지 개인 정보를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견적서 등의 감사자료를 통해 증명할 의무가 유지된다. 김 의장은 "이전까지 해당하는 기관에서 신분증 사본의 제공을 거부해 오히려 효율적인 학생회비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고 수정의 이유를 밝혔다.

현행 학사구조를 반영하지 못한 용어의 수정도 이뤄졌다. 기존 감사세칙 제13조에 명시된 '학과 감사' 부분을 '학과(부) 및 트랙 감사'로 수정했다. 학과(부)제와 더불어 트랙제까지 운영되는 본교의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학생회칙 개정의 주요 내용

- 대의원 수 변경 및 배정

올해 신설된 창의대 내에서 대의원 인원 조정 및 신규 배정도 이뤄졌다. 이번 연도부터 상상력인재학부는 독립된 별개의 학부에서 창의대 내의 학부로 편입돼 1학년에 할당된 대의원 수가 6명에서 2명으로 하향 조정됐다. 더불어 신설된 문학문화콘텐츠학과와 AI융합학과에는 1학년 대의원이 각 1명씩 배정됐다.

미플대 학생회가 신규 출범함에 따라 해당 소속 모든 학과에도 대의원이 배정됐다. 이들은 학과별로 각 학년마다 1명씩 총 4명

의 대의원을 구성한다. 김 의장은 "미플대는 설립된 이후 3년간 학생회가 부재였었다는 이유로 대의원 인원이 배정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미플대 학생회 견제를 위해 해당 단과대학 소속 대의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인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일부 학생자치기구 예산 인준의 주요 내용

- 동아리연합회 총 653,680원
-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학생회 총 1,924,200원
- 창의융합대학 학생회 총 545,280원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 3월 재선거를 통해 구성된 일부 학생자치기구의 상반기 예산안 인준도 이뤄졌다. 제36대 동연 '동화'는 예산으로 653,680원을 인준 받았다. 세부 항목으로는 ▲키카오톡 채널 ▲동연 인스타그램 팔로우 이벤트 간식사업 ▲대여사업 ▲정결용품 제공 사업 ▲사업예비비 ▲일상운영비 등이 있다.

인문예술대 학생회 '하루'가 인준받은 금액은 총 1,924,200원이다. ▲간식사업 ▲교류사업 ▲문화장려사업 ▲복지사업 ▲사업예비비 ▲일상운영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됐다. 창의대 학생회 'you:us'의 예산으로는 총 545,280원이 승인됐다. 이는 ▲간식사업 ▲행사사업 ▲사업예비비 ▲일상운영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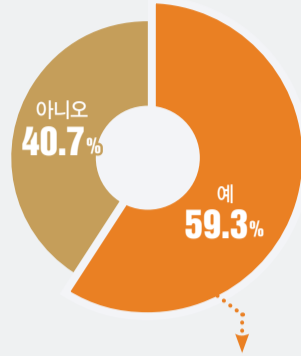
김 의장은 "학생회칙은 여전히 바뀌어야 할 부분이 많다"며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학생회칙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혁 기자 normalhyeok0927@hansung.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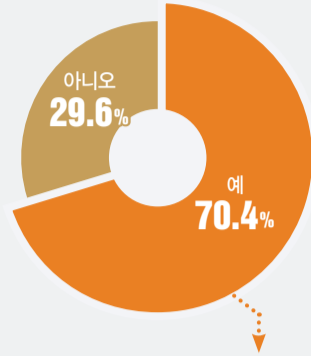
야간, 주간에 비해 편의시설 이용고충 '태반'

야간 시간대 편의시설 이용 관련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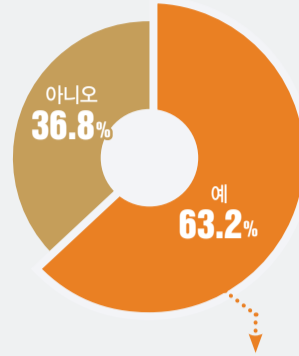
Q. 야간 시간대에 스쿨버스 미운영으로 불편을 겪으신 적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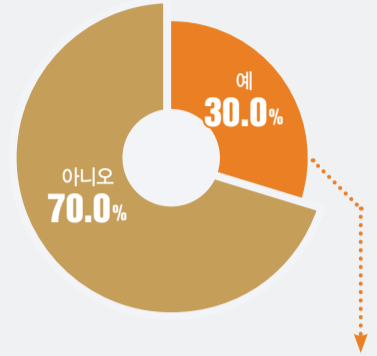
Q. 야간 시간대에 식당 및 매점 이용 시 불편을 겪으신 적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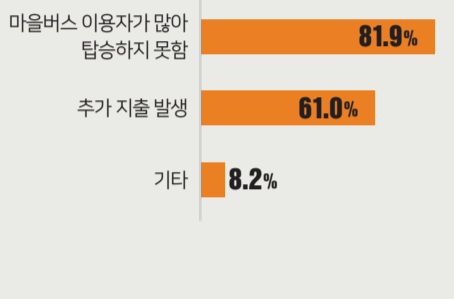
Q. 야간 시간대에 상상파크·상상파크 플러스 이용 시 불편을 겪으신 적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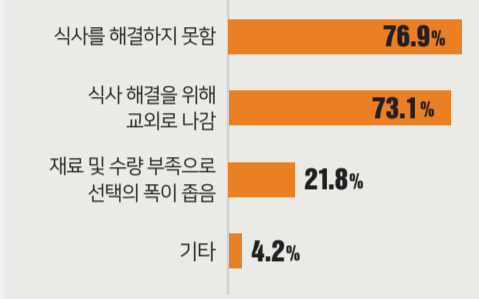
Q. 야간 시간대에 불편을 겪으신 다른 편의시설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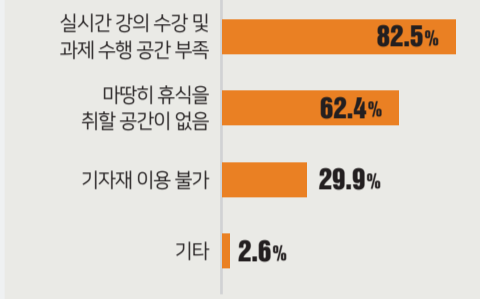
Q. 스쿨버스를 이용하지 못해 어떤 불편을 겪으셨나요?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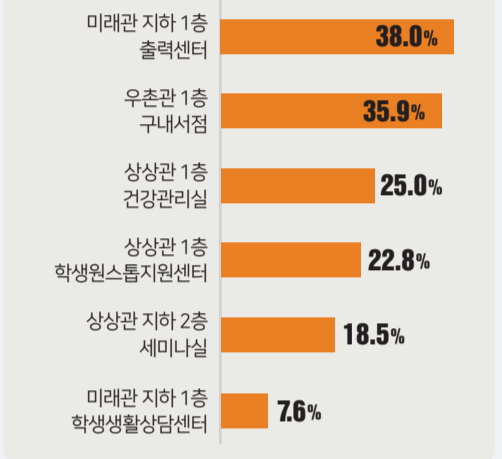
Q. 식당 및 매점 이용에 어떤 불편을 겪으셨나요? *중복응답



Q. 상상파크·상상파크 플러스 이용에 어떤 불편을 겪으셨나요? *중복응답



Q. 야간 시간대에 어떤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으셨나요? *중복응답



*본 설문은 표본은 본교 재학생 307명이며, 소속 시간대 별로는 주간 95명, 야간 212명이 응답했습니다.
*본 그래프는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입니다.

본교는 강의 수강시간을 크게 주간·야간으로 나누고, 학생들은 각각 소속 시간대의 강의를 듣는다. 본교의 학사 행정상 야간 수업은 18시부터 시작한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학내 편의시설은 18시가 지나면 이용할 수 없다. 때문에 야간 학생은 주간 학생과 달리 공간시간이 생겨도 학내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야간 시간대 편의시설 이용 시 학생들이 느낀 구체적인 불편함을 알아보고자 '야간 시간대 편의시설 이용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에는 주간 소속 학생 95명(30.9%), 야간 소속 학생 212명(69.1%) 등 총 307명의 재학생이 응답했다. 설문조사는 ▲스쿨버스 ▲식당 및 매점 ▲상상파크 및 상상파크 플러스 ▲기타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며 발생한 불편함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됐다.

먼저 '야간 시간대에 스쿨버스 미운영으로 불편을 겪으신 적이 있는가'라는 문항에 전체 응답자 중 182명(59.3%)은 '예', 125명(40.7%)은 '아니오'라고 답했다. 과반 이상의 학생이 불편을 겪은 것이다. 마을버스와 스쿨버스가 동시에 운행되는 주간 시간대와 달리, 야간 시간대 학생들이 한성대입구역에서 본교까지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마을버스뿐인 상황이다. 최서현(뉴티 2)

학생은 "등교 시간에 한성대입구역에서 학교까지 운영하는 대중교통은 '성북02' 마을버스밖에 없다. 그마저도 사람이 너무 몰릴 때는 버스를 타지 못해 수업에 늦은 적도 많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학생들은 마을버스에 사람들이 과도하게 몰린다는 점을 불편의 주된 이유로 들었다. '스쿨버스를 이용하지 못해 어떤 불편을 겪는가'라는 질문에 '마을버스 이용자가 많아 탑승하지 못함(81.9%)'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뒤이어 '추가 지출 발생(61%)'이 잇따랐다. 이외에도 '배차 간격이 김', '안전성 문제' 등으로 불편했다는 의견이 존재했다. 특히 안전성 문제의 경우, 현재 재개발로 인해 학교 주변 도로의 광원이 충분히 않아 더욱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있다. 이승원(IT공과대학) 교수는 "야간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역까지 걸어가는 것이 위험해 보인다. 밤이라 어둡기도 하고 재개발 구역이라 교수의 입장에서 학생들의 처우가 걱정된다"고 전하기도 했다.

야간 시간대에도 이용할 수 있긴 하지만, 주간 시간대에 비해 상당히 협소한 시간만 운영되는 학생식당과 매점에도 부정적인 반응이 대거 나왔다. 이들은 각각 19시와 20시에 문을 닫는다. '야간 시간대에 식당 및 매점 이용 시 불편을 겪으신 적이 있는가'라는

문항에 전체 응답자 중 216명(70.4%)이 '예', 91명(29.6%)가 '아니오'라고 답했다.

'예'라고 답한 학생들은 대부분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당 및 매점 이용에 어떤 불편을 겪으셨는가'라는 질문에 '식사를 해결하지 못함(76.9%)'이 가장 많았으며, '식사 해결을 위해 교외로 나감(73.1%)', '재료 및 수량 부족으로 선택의 폭이 좁음(21.8%)'이 그 뒤를 이었다. 임동욱(AI응용 1) 학생은 "저녁밥을 먹을 시간에 수업을 듣는데 수업이 끝나고 나면 배가 고플 때가 많다"라며, "학교에서 음식을 사 먹을 곳이 없어 멀리 학교 밖으로 나가거나, 수업이 모두 끝날 때까지 굶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증언했다.

마감 전에 학생식당을 방문해도,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지 못한다는 불만도 토로됐다. 실제로 18시 이후에는 재료가 대부분 소진돼 일부 메뉴를 주문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복수의 응답이 있었다. 공보준(인문 2) 학생은 "보통 수업이 시작하기 전 18시에 학식을 먹곤 한다. 늦은 시간대에는 재료가 소진된 메뉴가 있어 원하는 것을 먹기 어려울 때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일부 학생은 식사 해결을 위해 상상빌리지에 위치한 편의점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강의가 진행되는 건물과 상상빌리지

사이의 거리 때문에 불편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김동건(문론 1) 학생은 "수업이 보통 20시에 시작하는데 학생식당과 매점이 모두 닫혀있다. 오르막길이고 외곽에 존재하는 편의점을 수업 중간에 다녀오기는 시간이 촉박하다"라고 꼬집었다.

상상파크와 상상파크 플러스를 이용하지 못해 발생한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간 시간대에 비해 사용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이 많았다. '야간 시간대에 상상파크와 상상파크 플러스 이용 시 불편을 겪은 적이 있는가'라는 문항에 전체 응답자 중 194명(63.2%)이 '예', 113명(36.8%)가 '아니오'라고 답했다. '예'라고 답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내에서 실시간 화상수업을 듣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상파크·상상파크 플러스 이용에 어떤 불편을 겪으셨는가'라는 질문에 '실시간 강의 수강 및 과제 수행 공간 부족(82.5%)'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마땅히 휴식을 취할 공간이 없음(62.4%)', '기자재 이용 불가(29.9%)'가 뒤따랐다.

또한 '야간 시간대에 불편을 겪은 다른 편의시설이 있는가'라는 문항에 215명(70%)이 '예'라고 답했으며, 이들 215명은 '어떤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으셨는가'라는 질문

에 '미래관 지하 1층 출력센터(38%)', '우촌관 1층 구내 서점(35.9%)', '기타(33.7%)', '상상관 1층 건강관리실(25%)', '상상관 1층 학생원스톱지원센터(22.8%)', '상상관 지하 2층 세미나실(18.5%)', '미래관 지하 1층 학생생활상담센터(7.6%)' 등의 응답을 남겼다. 이외에도 ▲통합기자재실 ▲낙산관 헬스장 ▲교내 카페 등에 대한 불편사항도 존재했다.

전반적으로, 학생들은 '본교 편의시설의 이용 시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수(인문 1) 학생은 "17시나 18시에 일정을 시작하는 야간 학생들을 위해 적어도 21시까지의 운영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이어 이영현(문론 1) 학생은 "공식적으로 야간 소속의 학생이 입학하는데, 주간 시간대에만 운영하는 편의시설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성대신문사는 여러 차례 대학본부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본부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지승빈(IT응용 4) 총학생회장은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야간 학생의 수가 적어 수요가 많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많은 학생들이 이로 인해 불만을 느낀다면, 총학생회 측에서 정식으로 학교에 건의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김지윤 기자 jizhey@naver.com

본교 인권센터 설치 완료

지난 5월, '한성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가 상상관 지하 1층에 설치됐다. 이 기관에서는 휴학생을 포함한 학내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상담 및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인권센터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3 제2항에 따라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진정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상담은 법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장치가 구비된 상담실에서 진행될 방침이다. 이는 상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언·폭행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상담의 진행은 인권

보호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외부 전문가가 담당한다.

한편, 인권센터는 지난 3월 24일부터 시행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설치됐다. 본래 설치 즉시 운영이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인난으로 운영이 지연됐다. 다만, 교육부에서는 이번 학기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조규태(한성인권센터) 센터장은 "각 학교마다 인권센터를 설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채용 공고도 됐음에도 지원자가 적다"며 "하루빨리 정상 운영을 시작해 학생들이 인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승원 기자 ksw905@hansung.ac.kr

신규 학사복 발표 예정

본교의 개교 5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신규 학사복(이하 학사복)의 착용이 '2022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부터 가능할 예정이다. 확정된 최종 시안은 7월 말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학사복은 작년 '학사복 공모전'에서 1차 심사에 통과한 세 팀의 시안을 토대로 제작됐다. 세 팀의 시안을 참고해 선정위원회가 최종 작업을 도맡았다. 선정위원회는 본교 글로벌혁신산업학부 일부 교수 및 미디어홍보팀 담당자를 비롯해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총학생회 졸업준비국장 등으로 구성됐다. 선정위원회의 학사복 관련 회의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이뤄졌는데, ▲타 대학 학사복과 유사성 및 중복성 ▲불법 복제 ▲지식재산권 등의 사안이 논의됐다.

학사복은 선정위원회의 추가적인 시간 수정을 거쳐 5월 30일자로 최종 확정됐다. 박태민(학생장학팀) 팀원은 "제작에 한달 반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7월에 학사복 실물을 받아볼 수 있다"며 "후기 학위수여식이 진행되는 8월 전에 학사복을 유튜브 영상으로도 선보이고자 한다"고 일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21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의 학위수여자도 '2022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때 학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박희진 기자 furi1120@naver.com



중운위 공약 이행, 2학기가 관건

총학생회 'BASE', '안성'을 향해

총학생회 'BASE'(이하 총학)는 지난 총선거에서 ▲온라인 익명 건의함 설치 ▲총학 공식 온라인 페이지 개설 ▲총학 공식 카카오톡 채널 개설 ▲만족스러운 학생식당 이용 ▲교내 음료 수거함 설치 ▲교내 문서 형식 MS워드 통일 ▲학우분들의 의견을 반영한 제휴 업체 선정 ▲진로 및 취업 관련 월간지 배포 ▲장학금 지급일 사전 고지 및 고정 ▲교육장학금 지원 범위 확대 ▲트랙 변경 신청 기간 연장 ▲e-class 배속 수강 허용 ▲학교 주변 정화 캠페인 ▲사라진 대학생활을 위한 행사 다양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재 총학의 공약 이행 상태는 이행 완료 2건(14.3%), 이행 중 4건(28.6%), 이행 예정 8건(57.1%)이다.

현재까지 총학이 이행 완료한 공약은 '학우분들의 의견을 반영한 제휴 업체 선정'과 '만족스러운 학생식당 이용'이다. 총학은 '학우분들의 의견을 반영한 제휴 업체 선정'과 관련해 학기 초 학과 잠바(이하 학잡) 업체를 선정하기 전 단과대별 학생 대표, 업체 대표와 함께 논의의 자리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총학은 '만족스러운 학생식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학식비 인상률을 낮췄다. 또한 학생식당 입구에 식자재 인상률을 게시하도록 요청한 상태다. 지승빈(IT응용 4) 총학생회장은 "당초 계획했던 학생식당 만족도 조사 대신 학식비 인상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공약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행 중인 공약은 ▲온라인 익명 건의함 설치 ▲총학 공식 온라인 페이지 개설 ▲장학금 지급일 사전 고지 및 고정 ▲사라진 대학생활을 위한 행사 다양화이다. 총학은 '온라인 익명 건의함 설치'와 '총학 공식 온라인 페이지 개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현재 웹사이트의 내용을 구성 중이다.

'장학금 지급일 사전 고지 및 고정' 공약은 학생장학팀과 회의가 진행된 상태다. 지 회장은 "아직 확답을 받지는 못했지만, 최소 1주나 2주 전이라도 확실한 공지가 나갈 수 있게 해결 방안을 마련 중"이라 전했다.

'사라진 대학생활을 위한 행사 다양화'는 공약의 세부 항목으로 ▲한성대 플라마켓 ▲중고 서적 물려주기 ▲HS 가을 피크닉이 제시됐다. '한성대 플라마켓'은 지난 5월 진행됐으며, '중고 서적 물려주기'는 학기말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HS 가을 피크닉'은 대동제로 대체돼 2학기에 열릴 계획이다.

이행 예정인 공약은 ▲총학 공식 카카오톡 채널 개설 ▲교내 음료 수거함 설치 ▲교내 문서 형식 MS워드 통일 ▲진로 및 취업 관련 월간지 배포 ▲교육장학금 지원 범위 확대 ▲트랙 변경 신청 기간 연장 ▲e-class 배속 수강 허용 ▲학교 주변 정화 캠페인 등이다. '총학 공식 카카오톡 채널 개설', '교내 음료 수거함 설치', '학

교 주변 정화 캠페인' 공약은 예산 문제로 이행을 미뤘다. 지 회장은 "2학기 대동제를 위해 1학기 예산을 최소한으로 줄인 상태"라며 "2학기에 인준받은 예산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교내 문서 형식 MS워드 통일' 공약 역시 예산 문제로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문서형식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하지만, 정보화팀의 예산 부족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관련해서 총학은 지속적으로 학생장학팀 및 정보화팀과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진로 및 취업 관련 월간지 배포' 공약은 총학 공식 온라인 페이지가 개설된 이후 이행 될 계획이다. 지 회장은 "진로 및 취업 관련 월간지 배포는 총학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교육장학금 지원 범위 확대' 공약의 추진을 위해 총학은 취업지원팀과 회의를 진행했다. 현재 총학은 취업지원팀으로부터 교육장학금에 관한 자료를 받은 상태이며, 이를 바탕으로 유관부서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트랙 변경 신청 기간 연장' 공약의 경우, 총학 내부 회의는 이뤄졌지만 아직 학교 측과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 회장은 "내부 준비를 마치면 학사지원팀과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지승빈 총학생회장

'e-class 배속 수강 허용' 공약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면서 1학기가 대면수업 원칙으로 이뤄짐에 따라 이행을 미뤘다. 지 회장은 "선거 당시는 코로나19가 활성화된 시기로 대부분 비대면 수업이 많아 공약으로 준비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2학기 역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필요하다면 이행할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지 회장은 "당선된 지 6개월이 지났으나 초심은 그대로다. 'BASE'의 슬로건인 '기본에 충실하다'처럼 기본부터 충실한 총학생회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박희진 기자 furi1120@naver.com

총대의원회 '순백', '도약'을 위해

총대의원회 '순백'(이하 총대)은 지난 총선거에서 ▲대의원 전문화 ▲대의원 간담회 실시 ▲총선거 100% 온라인 실시 ▲후보자토론회 개최 ▲학기별 학생회 영상감사 ▲학생회칙 일관성 및 객관성 확보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재까지 총대의 공약 이행 상태는 이행 완료 1건(16.7%), 이행 중 2건(33.3%), 이행 예정 3건(50%)이다.

현재 총대가 이행 완료한 공약은 '대의원 전문화'다. 해당 공약의 이행을 위해 총대는 '2022학년도 상반기 2차 대의원총회(이하 총회)'에서 학생회칙 개정 사항에 대한 대의원 대상의 사전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감사에 참여하는 상임위원을 대상으로 '감사 OT'를 열어, 대의원과 상임위원의 전반적인 전문성을 제고했다.

이행 중인 공약은 '대의원 간담회 실시'와 '학생회칙 일관성 및 객관성 확보'다. 총대는 '대의원 간담회 실시' 공약의 세부 항목으로 '대의원 학교'와 '대의원 간담회'를 계획했다. 현재까지 대의원 간담회는 진행됐으나, 대의원 학교는 2학기에 추진될 예정이다. 당초에는 대의원 학교를 1학기에, 대의원 간담회는 2학기에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우려로 인해 외부 활동이 주를 이루는 대의원 학교는 2학기로 연기됐으며, 대의원 간담회는 1학기에 순서를 바꿔 진행됐다.

이와 더불어 총대는 '학생회칙 일관성 및 객관성 확보' 공약의 이행을 위해서 '학생회칙 판례집'을 제작 중

이다. 김산(사회과학 4) 총대의장은 "판례집이 내용 측면에서는 제작이 거의 완료된 수준이며, 편집 디자인에 대한 수정만 남았다. 이번 학기 말이나 다음 학기 초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선거 100% 온라인 실시 ▲후보자토론회 개최 ▲학기별 학생회 영상감사 공약은 이행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총대는 '총선거 100% 온라인 실시' 공약의 이행을 위해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외부 업체를 이용한 기존의 온라인 투표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가 있어, 본교 자체 시스템으로 선거를 진행하기 위함이다. 김 의장은 "IT공과대학 학생회장에게 온라인 투표 시스템 개발에 대한 문의를 드렸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시스템 개발의 성공 여부는 10월 초에 판정되는데, 자체 개발이 어려울 시 기존처럼 외부 업체에 맡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후보자토론회 개최' 공약은 관련 내용을 담은 선거 시행 세칙 제41조가 총회에서 통과된 상태다. 이에 따라 해당 공약의 기반은 세워졌으나, 실제로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지는 총선거가 진행되는 2학기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김 의장은 "토론회가 열리는 구체적인 시기는 2학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교 학생들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한 '학기별 학생회 영상 감사' 공약은 각 자치기구가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김산 총대의장

영상을 제작해 e-class에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공약은 본교 홈페이지 낙산의 매아리에 게시된 감사 결과를 학생들이 많이 접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시됐다. 김 의장은 "영상 제작 이전에 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자치기구 및 방송국 HBS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총대의 향후 포부에 대해 김 의장은 "당선을 위한 공약이 아니라 총대의 발전을 위한 공약들"이라며 "앞으로 더 열심히 할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정상혁 기자 normalhyeok0927@hansung.ac.kr

동아리연합회 '동화', '화합'을 꿈꾸며

동아리연합회 '동화'(이하 동연)의 주요 공약은 ▲동아리 간식사업 ▲소통의 장 활성화 ▲동아리 감사 매뉴얼 제작 ▲분과별 동아리 활동 활성화 등이다. 현재 동연의 공약 이행 상태는 이행 중 1건(25%), 이행 예정 3건(75%)이다.

이행 중인 공약은 '소통의 장 활성화'다. 세부 항목으로는 ▲동연 카카오톡 채널 개설 ▲유튜브 정기 콘텐츠 운영 ▲인스타그램 정기 달력 및 동아리 홍보 카드뉴스 제작 등이 있다. 동연은 당선 직후 개설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있으며, 공식 유튜브 채널 운영을 시작했다. '정기 달력'은 지금까지 총 3건이 동화의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게시됐고 이후 매달 한 건씩 추가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동아리 홍보 카드뉴스'는 각 동아리에 대한 자료조사가 끝나는 대로 제작에 착수할 계획이다. 권수민(인문 3) 동연회장은 "각 동아리에 대한 정보 취합이 완료되는 즉시 차례대로 게시하겠다"고 전했다.

이행 예정인 공약은 ▲동아리 간식사업 ▲동아리 감사 매뉴얼 제작 ▲분과별 동아리 활동 활성화다. '동아리 간식사업'은 이번 달 중으로 동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행될 예정이며, 지급대상을 기존 동아리 회원에서 일반 학생으로 확대하면서 '인스타그램 간식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동아리 감사 매뉴얼 제작' 공약은 기존 동아리 평가의 기준이 모호했던 점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권 회장은 "6월 중 매뉴얼을 배포할 계획이며, 이해를 돕기 위한 동영상도 제공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분과별 동아리 활동 활성화' 공약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침체됐던 동아리 활동을 개선하기 위해 제시됐다. 동연은 분과별 협업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각 동아리 대표 및 분과장 회의를 통해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동연은 해당 공약의 일환으로 학생장학팀에 '동아리 밤샘 활동'도 건의했으나, 코로나19를 사유로 허가받지 못했다. 권 회장은 "밤샘 활동이 가능해진다면, 동아리 MT 등의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권 회장은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강승원 기자 ksw905@hansung.ac.kr

학생복지위원회 '하늘', '편의'로 나아가

학생복지위원회 '하늘'(이하 학복위)의 주요 공약은 ▲그린 캠퍼스 ▲성북경찰서 합동 순찰대 운영 ▲대면 축제 시 재학생 Zone 확보 ▲토의 및 자격증 교재 무료 배부 ▲한성대 인근 음식점 제휴 및 홍보 ▲대여 물품 실시간 업데이트 ▲대여 물품 확대 등이다. 현재까지 학복위의 공약 이행 상태는 이행 완료 2건(28.6%), 이행 중 1건(14.3%), 이행 예정 4건(57.1%)이다.

이행 완료된 공약은 '토의 및 자격증 교재 무료 배부', '대여 물품 확대'다. 학복위는 지난달 추천된 3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토의 교재를 배부했다. 또한 독서대, 무선 마우스, 노트북 거치대 등을 추가로 마련해 대여 물품을 확대했다.



▲조현기 학생복지위원장

이행 중인 공약으로는 '성북경찰서 합동 순찰대 운영'이 있다. 학복위는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해당 공약을 추진하고자 했지만, 성북경찰서 내부 인사이동으로 순찰대 마련이 다소 지연됐다. 조현기(기계 3) 정위원장은 "현재 경찰서와 미팅을 마친 상황이고 학생장학팀과도 계속 논의 중이다. 6월 중으로 순찰대를 구성해 2학기부터는 공약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린 캠퍼스 ▲대면 축제 시 재학생 Zone 확보 ▲한성대 인근 음식점 제휴 및 홍보 ▲대여 물품 실시간 업데이트 등의 공약은 모두 이행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린캠퍼스'는 교내 카페에서 텀블러를 사용하면 스탬프를 적립해주는 제도다. 해당 공약은 교내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됐지만 예산 인준이 늦어지면서 미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조 위원장은 "그린 캠퍼스 공약은 현재 관련 부서와 이야기가 완료된 상태다. 스탬프 북을 제작하는 과정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대면 축제 시 재학생 Zone 확보' 공약은 2학기에 진행되는 대동제에서 이뤄질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펜스 앞에 서있을 규율대 구성원을 논의 중에 있다. 규율대는 총대의원회와 학복위의 국원들이 담당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한성대 인근 음식점 제휴 및 홍보' 공약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학생들이 잘 모르는 학교 주변 음식점을 알리기 위해 제시됐다. 학복위는 해당 공약의

이행을 위해 학교 주변 음식점 조사를 완료한 상황이다. '대여 물품 실시간 업데이트' 공약은 학복위가 대여를 진행하는 플랫폼을 자체 제작하기로 결정하면서 이행이 미뤄졌다. 당초 학복위는 HSU어플을 통해 실시간 대여 물품 현황을 확인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관련 부서와 협의과정이 복잡해 학복위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링크트리'로 플랫폼을 변경했다. 조 위원장은 "이미 링크트리 제작을 진행 중이라 완성만 된다면 방중에도 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총선거 당시 공약과 별도로 약속한 학복위의 추진예정 사업에는 ▲잡플래닛 제휴 홍보 ▲의료 플랫폼 제휴 ▲한성대 다이어리 제작 및 배부 ▲캡스톤-졸업 전시 홍보 ▲분실물 실시간 업데이트 등이 있다. 그 중 '잡플래닛 제휴 홍보', '의료 플랫폼 제휴' 사업은 진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 외 사업들은 모두 이행 예정인 상태다. 조 위원장은 "학복위에서 잡플래닛 제휴를 체결하고 이를 홍보하려 했으나, 당선 이후 확인 결과 이미 학교 차원에서 제휴가 이뤄진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의료 플랫폼 제휴의 경우 의료사고 등의 위험이 있어 학교가 제휴 체결을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학복위의 공약 이행에 대해 조 위원장은 "이행을 완료한 사업이 얼마 없긴 하지만 2학기에는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

김지윤 기자 jizhej@naver.com



▲권수민 동아리연합회장

반쪽짜리 지원, 청년창업의 민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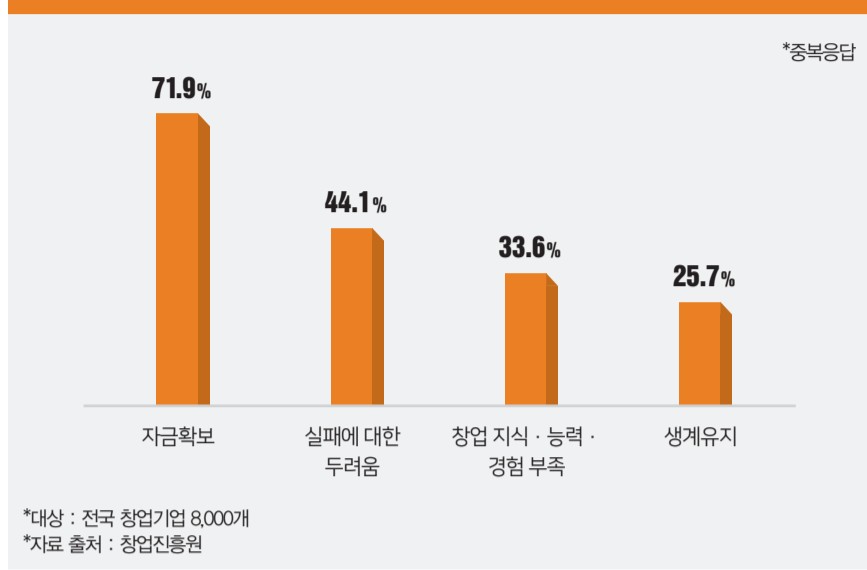
기술 분야로 쏠린 창업 지원 청년창업 폐업률도 높아져 동등한 교육 및 지원 필요

“내 학벌로는 취업 못해”, “취준할 바엔 창업한다”. 일자리 창출이 한계에 다다른 현실에서 청년창업의 열풍은 날이 갈수록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창업이라는 장벽 앞에 선 청년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청년들은 엄혹한 경제적·재정적 현실 앞에 무너지는 상황이다. 이들은 어떠한 문제점들로 좌절하게 된 것일까.

기성세대가 대학을 졸업하고 남들이 선망하는 직장에 다니는 것을 성공의 궤도로 삼았다면, 2030세대는 스스로 즐길 수 있고 독립이 가능한 창업을 선택하고 있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의 ‘2020년 창업기업동향(이하 창업기업동향)’에 따르면 30대 미만의 청년창업기업이 2016년 11만 6,815개에서 2021년 18만 3,966개로 57.5%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철(군산대학교 융합기술창업학과) 교수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년을 보장하는 민간 기업이 사라지게 되면서, 현재의 2030세대들은 직장에 매여 살기보다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주)위드엘의 이정근 대표이사는 “2030세대는 남의 시선과 평판을 중시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결정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 이미 만들어진 기업에 들어가는 것보다 창업을 도전하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많은 청년은 창업의 준비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창업진흥원의 ‘2019년 창업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창업 준비 단계에서 ▲자금확보(71.9%) ▲실패에 대한 두려움(44.1%) ▲창업 지식·능력·경험 부족(33.6%) ▲생계유지(25.7%) 등이 주요 장애 요인으로 꼽혔다. 김대건(계명대학교 벤처창업학과) 교수는 “불충분한 자금 확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지식과 경험

2019년 창업기업실태조사 중 창업 장애요인



부족 등은 모두 창업을 위한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이윤재(숭실대학교 금융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창업 초기의 경우 청년이 사업의 모든 영역을 책임져야 하는데, 이는 창업자 혼자 감당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년창업 분야 가운데 IT 기술을 접목한 ‘기술 기반 업종’보다 ‘비기술 기반 업종’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더 많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창업기업동향에 의하면 30살 미만 청년층이 많이 창업하는 상위 3개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8만 3,612명) ▲기술 기반 업종(2만 8,552명) ▲숙박 및 음식점업(2만 5,043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기반 업종에는 약 2만 명이 속하고 있는 반면, 비기술 기반 업종에 속하는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는 약 10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창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많은 청년이 비기술 기반 업종의 창업에 도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진입장벽이 낮다는 점이다. 이윤재 교수는 “음식 및 숙박, 도매 및 소매업은 비교적 적은 자본과 특별한 기술 없이도 진입할 수 있어 많은 청년이 뛰어드는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원섭(한동대학교 ICT창업학

부) 교수는 “IT 기술을 이용하는 창업은 기술 구현 및 고도화를 위해 유능한 인력들을 투입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청년이 창업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청년들은 비기술 기반 업종 분야에 창업을 도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인식 역시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기술 창업 분야’와 ‘비기술 창업 분야’ 사이에서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2년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보면, 창업 지원 예산 3조 6,668억 원 중 소상공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사업 예산은 최대 869억 8,100만 원가량으로 집계됐으며, 그 외 나머지의 예산은 전부 기술 창업 분야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창업 분야에 비해 비기술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이 상대적으로 많음에도, 그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교육의 기회는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다. 이 대표이사는 “현재도 다양한 소상공인 창업지원 제도가 마련돼 있기는 하지만, 비기술 창업 분야는 기술 창업 분야에 비해 과다경쟁 업종이기에 지원받기 치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대건 교수는 “기술 창업과 비기술 창업에 대한 지원은 동일선상에서 장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비기술 창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생계를 위한 지원이 아닌 발전을 위한 지원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술회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술 창업자가 비기술 창업자보다 창업에 성공했을 때 비교적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요인이 작용한 것이라고 단언한다. 김현철 교수는 “기술 창업자가 성공했을 때 나타나는 고용효과가 더욱 크기 때문에 청년실업률이 높은 현실에서 불가피한 정책적 선택”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명일(한밭대학교 창업학과) 교수는 “정부는 한정된 예산으로 정책 효과를 최대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도매 및 소매업과 같은 비기술 창업 분야보다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술혁신에 이르는 창업 분야에 창업 지원 예산을 집중 투자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년층의 폐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국제청국제 통계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 2030세대 창업 기업은 49만 8,226개인 동시에 2030세대 폐업 기업은 24만 1,631개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청년층들이 창업에 도전했다가 어려운 현실을 맞닥뜨려 포기해 이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데스밸리(Death Valley)’ 대비 부족을 청년창업의 가장 큰 패착 요인으로 꼽았다. 데스밸리란 창업 3~7년 차에 겪는 자금난 등의 위기를 일컫는다. (주)한국에스큐아이 김관호 대표이사는 “현실적으로 청년들이 창업 초기에 보유한 자금을 이를 최소한으로 투자한다 하더라도 연차가 쌓일수록 지속적으로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데스밸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등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가 지속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황보윤(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교수는 “이 시기에는 사업의 수익을 대폭 증대하는 제품·서비스 개선 아카데미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 상황에서 비기술 청년창업자들도 적절한 지원이 뒷받침되면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원섭 교수는 “비기술 분야에서도 교육 및 재정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한다. 그 파급 효과의 크기가 기술 창업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더라도,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경환(성균관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원장은 “마켓컬리의 김슬아 대표, 쿠팡의 김범수 대표, 배달의 민족의 김봉진 대표 등의 창업자도 공학이나 기술을 전공한 것은 아니다. 비기술 전문인 역시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청년창업에 실패했을 경우 재기에 나설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이 구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 대표이사는 “단순 자금 지원만으로는 유사한 실패의 반복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정확한 진단을 통해 사업수행계획을 수립하고 일정 기간 전문가와의 충분한 협력 관계를 맺도록 해 창업 성공 확률을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원섭 교수는 “실패로 인한 파급효과를 피하기 위한 정책보다 실패를 기반으로 성공을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즉, 실패하지 않을 안전망을 구축하기보다 ‘가장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실패’를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정책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창업 실패를 긍정적으로 용인하는 사회문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 원장은 “실패도 자산이다. 청년 구원원 모두가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교수 역시 “청년들은 흔히 창업에 실패하면 패가망신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진다. 그러나 창업은 배우기 위함이 목적이며,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면서 경험하는 실패는 그 과정에서 얻은 지식과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임혜은 기자 hyeeun0115@naver.com



위태로운 간호법 제정 줄타기

『간호법』 제정안이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방지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26일 논의가 예정돼 있던 간호법 제정안이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둘러싸고 간호사 측과 의사 측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며 양측의 파업 예고까지 이어졌지만, 당장 논란 자체는 일단락된 모양새다.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분리해 독립된 체계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입법이 추진됐다.

당초 간호법은 5월 9일 1차 관문이었던 국회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 통과하고, 이후의 보건복지위원회까지 통과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순항이 예상됐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의 목소리가 첨예하게 엇갈리자 입법 논의가 하반기로 미뤄졌다. 이 과정에서 간호법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의사와 간호조무사 7천여 명이 거리로 나서고, 삭발 투쟁이 이어졌다. 간호사 측도 이에 맞서 간호대생을 포함한 5천여 명이 모여 간호법 통과를 외쳤다. 해당 법안은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간호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및 3년 주기의 실태조사 ▲환자 안전을 위한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처우개선 기반지침 제정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조사 및

교육의무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사 측은 간호법 제정이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한간호협회의 「2020년 간호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내 인구 1,000명 대비 간호사 수는 OECD 평균인 8.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8명이다. 더불어 간호사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인원이 줄어 숙련된 간호사가 부족하며, 이는 결국 간호 서비스의 질 하락을 가져온다는 것이 간호사 측의 의견이다. 간호법 제정이 국제적으로도 합당한 방향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실제로 해외 90개국에서 이미 간호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 및 대만 등의 60개국은 간호법과 의사법 그리고 치과의사법 등까지 각각을 분리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의사 측은 ‘간호법’이라는 명칭 자체에 문제를 제기한다. ‘간호사법’이 아닌 ‘간호법’은 직업에 관한 법이 아니라 업무를 다루는 직무법이며, 이 때문에 통합적으로 관리하던 의료 일선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등은 모두 직업에 대한 법률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간호라는 직무를 다름

으로써 의료와 간호의 구분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제정안에 포함된 ‘모든 국민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도 양측의 의견이 맞섰다. 쟁점이 되는 항목은 ‘지역사회’로, 의사 측은 간호사의 업무 영역이 의료기관 밖으로 확대되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의료기관 내에서도 간호사 수급이 어려워, 범위가 확대된다면 인력 유출이 불가피하다는 말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아닌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의 지역사회로 업무 영역을 넓힐 경우 의료기관의 간호 인력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간호사 측은 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걸맞은 움직임이라는 입장이다. 가속화되는 고령화 사회 등으로 인해 대두되는 돌봄 문제가 간호법 제정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병원에 묶여 있는 간호 업무가 지역으로 확대된다면 독거노인 등에 대한 간호가 가능해져 지역의 돌봄 체계가 더욱 온전한 형태를 갖추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혜정 기자 hhj716@hansung.ac.kr

법률속의LAW

매정한 관리, ‘동물사체’

대부분의 사람은 반려동물이 죽으면 그 사체를 매장한다. 실제로 지난 2018년에 한국펫사료협회가 조사한 「2018년 반려동물 보유현황 및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반려견과 반려묘의 사체를 매장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각각 47%와 52%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동물의 사체를 ‘폐기물’로 규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매장행위는 엄밀히 말해 ‘폐기물 무단 투기’에 해당한다.

『동물보호법』 제22조 제3항에서는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은 ▲종량제 봉투에 배출 ▲동물병원에 위탁 ▲동물장묘업체 이용뿐이다. 만일 이를 어기게 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하천이나 호수 등에 사체를 투기하면 더욱 엄중하게 벌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일 이를 어기게 되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국가에 등록된 반려동물이 죽으면 반려인은 말소 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12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된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말소 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만일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반려인에게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라리 이렇게 등록이라도 된 반려동물은 사정이 나은 편이다. 미등록 반려동물들은 대부분 매장되거나 종량제 봉투에 버려진다. 이들은 법적으로 주인이 없는 동물로 취급돼 동물 사체를 위탁하는 절차를 받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반려동물의 죽음은 반려인에게 감당하기 힘든 슬픔이다. 그 애정에 걸맞는 이별을 위해서는 미리 등록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김두환(경상국립대학교 축산과학부) 교수는 “동물의 사체를 폐기물로 보는 것은 생명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사체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보호 혹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이 의미가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윤 기자 jizey@naver.com

가장 찬란한 순간, ‘찰칵’

〈편집자주〉

나와 잘 어울리는 색상을 배경으로 찍은 증명사진부터 열심히 몸을 가꾸 기념비적으로 촬영한 바디프로필, 친구들과 만날 때 찍지 않으면 섭섭한 네 컷 사진, 여행마다 챙겨가는 일회용 필름카메라로 찍은 사진 등은 우리에게 낯선 존재가 아니다. 현상을 거쳐 앨범 속에 사진을 모아놓았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다양한 사진을 온·오프라인 상에서 소유하고 있다. 이처럼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사진 찍기는 특히나 왜 젊은 층에서 유행 중일까. 그리고 어떤 종류들이 존재하며, 각각은 왜 인기를 끌고 있을까.



찍습니다. 하나, 둘, 셋!

타인에게 '나'를 보여주는 것에 익숙한 청년층 사이에선 본인의 사진을 SNS 프로필 사진으로 게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사진 촬영에는 종류도 가지각색인데, 크게 사진사가 찍어주는 '스튜디오 촬영'과 전문 사진사 없이 스스로 찍는 '셀프 스튜디오 촬영'이 있다. 각각에는 어떤 사진 찍기가 존재하며, 왜 그 사진들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자.

‘나’에 대한 사진은 전문가에게

과거 증명사진은 흰색 배경 앞에서 3분이면 촬영이 끝나는 단순 신원 확인을 위한 사진이었다. 그러나 최근 배경색, 눈썹·귀 노출 등 관련 규정이 일부 완화되면서 증명사진에 개성을 더하는 것이 젊은 층에서 유행 중이다. 특히 각자에게 어울리는 색인 '퍼스널 컬러'를 배경색으로 넣는 흐름이 약 2017년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다. 컬러 증명사진을 촬영하는 사진관을 운영 중인 유송운(송운사진관) 대표는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 사진 찍는 문화가 생긴 것 같다. 실제로 촬영을 해보면 본인에게 어울리는 색이 무엇인지 알고 배경색을 설정하는 젊은 층도 많다"고 전했다. 가천대학교 스마트시티융합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이주영 학생은 "흰색 배경은 단조로운 경향이 있는데, 착용한 옷과 얼굴빛에 맞게 배경을 설정

하니 더욱 만족스러운 사진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생화 등의 오브제를 함께 배치해 증명사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방식도 유행이다. 오브제가 들어간 증명사진은 신분 증명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지만, 그림에도 청년층은 순수하게 자기만족을 위해 '나만의' 증명사진을 남긴다. 인덕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서현주 학생은 "내가 좋아하고, 나와 어울리는 특별한 배경을 바탕으로 한 증명사진을 가지고 싶은 욕망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개인이 곧 브랜드가 되는 '퍼스널 브랜드'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서용구(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과거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늘어난 가운데 현대세대들은 끊임없이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상품이 되고 브랜드가 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그에 맞춘 슬로건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명사진 외에도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또 다른 사진이 있다. 고강도의 운동과 식단 조절로 만든 근육질의 몸으로 전문 스튜디오에 방문해 찍는 '바디프로필'이다. 청년층 사이에서 바디프로필이 유행하는 이유는 이전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과 연관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

됨에 따라,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며 꾸준한 운동과 식단관리를 일상 속에 포함시킬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또한 바디프로필을 촬영하는 과정 속에서 청년층은 성취감을 얻어간다.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휴학생인 노영진(20) 씨는 "운동을 통해 건강한 몸을 갖게 됐고 무엇보다도 자존감이 높아졌다. 고생한 만큼 성취감도 높았으며 다른 어떤 것이라도 도전해보고 싶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젊은 층들은 과거와 달리 자신의 신체를 드러내는데 거리낌이 없다. '스펙'과 '일상'은 물론 '몸'의 영역도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강혜원(성균관대학교 기업가정신과 혁신센터) 연구원은 "기성세대와 달리 몸을 과시하고 숨기지 않는 문화가 생긴 것 같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신체적 매력을 어필하는 것은 고려되는 사항이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도 나 오듯이 신체적 매력을 어필하는 것이 이전 세대보다 중요해진 것"이라술했다.

셀프로 더 자주, 더 많이

증명사진과 바디프로필은 기념비적인 성격이 강하고 가격대가 비교적 높아 자주 촬영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손쉽게 자신의 모습을 남기고 싶을 때 찾아가는 곳이 바로

'셀프 사진 부스'다. 셀프 사진 부스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로 이용할 수 있어 청년층 사이에서는 사용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다. 셀프 사진 부스의 가장 큰 특징은 사진사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카메라를 어색해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서 학생은 "유행에 따라가기 위해 셀프 사진 부스를 이용했지만, 최근에는 사진을 촬영하는 내 모습을 남기고 있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애용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가톨릭대학교 공간디자인·소비자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김현우 학생은 "휴대폰 카메라의 성능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디지털 카메라의 성능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셀프 스튜디오를 자주 이용한다"고 덧붙였다. 강 연구원은 "셀프 사진 부스로 고가의 디지털 장비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전문가들의 영역이 된 질 높은 사진을 스스로 촬영할 수 있게 돼 현재의 사진 문화가 형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디지털 사진뿐만 아니라, 필름사진과 같은 아날로그 사진도 재조명되고 있다. 그 중 일회용 필름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것이 청년층에서 특히 유행 중이다. 일회용 필름카메라는 과거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특유의 렌즈 필터를 갖고 있으며, 제한된 필름의 수는 한 장 한 장마다 특별함을 부

여한다. 숙명여자대학교 통계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장수민 학생은 "필름카메라의 경우 특유의 예스러운 감성이 묻어나올 뿐만 아니라 색감도 따뜻하게 담아낸다. 휴대폰 카메라로는 담기지 않는 색감에 옛날 감성을 더하기 위해 사용한다"고 자신의 경험을 밝혔다.

필름카메라가 유행하게 된 원인에는 일명 '반작용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는 의견이 존재한다. 김상덕(경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모두가 웰빙 푸드를 원할 때 '폭탄 버거', '내장파괴버거' 같은 해로운 패스트 푸드가 유행하는 것과 같이, 아날로그 감성 또한 디지털 감성이 일반적일 때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반작용의 일환으로 온라인 매장보다 오프라인 매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청년들은 찍고, 현상하고, 인화하려는 불편한 과정들을 하나의 경험과 놀이로 즐기고 있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1학년에 재학 중인 이서진 학생은 "현대의 디지털 세대를 역행하는 아날로그적인 사진 문화만이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 행위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다는 방증이 되기 때문에, 사진 자체를 넘어 타인과의 추억을 더 깊어지게 해준다는 점에서 선호한다"고 전했다.

박희진 기자 furi1120@naver.com

뽀를 한껏, 기록 한 컷

피사체와 어울리는 다양한 색을 배경으로 한 '증명사진', 열심히 운동한 결과물을 뽐내는 '바디프로필', 친구들과 함께 일상의 모습을 담은 '네 컷 사진', 대체할 수 없는 아날로그 감성의 '필름사진'. 요즘 인스타그램 피드나 카카오톡 프로필을 둘러보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이다. 많은 청년이 다양한 사진의 각기 다른 매력에 빠져들고 있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누구나 사진을 찍는 것이 일상이 됨으로써, 사진 문화가 새 국면을 맞은 것이다.

이와 같은 유행의 원인을 청년 세대에 내재한 특성에서 찾는 견해가 있다. 현 청년층이 유행을 받아들이는 데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유행이 더 빠르게 퍼져 나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단순한 이유만으로 유행하는 것일까. 청년층을 중심으로 사진 찍기 문화가 재편된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SNS 세상에 뽐내는 나

MZ세대가 향유하는 사진 유형이 세분화

되는 것은 이들이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에 능하다는 특성에 기인한다. 다른 세대에 비해 SNS로 서로를 처음 마주하는 빈도가 비교적 잦기 때문이다.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은 자신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빠르고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소통 방법으로, SNS에 게시하는 사진들이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다. 김찬석(경주대학교 광고홍보문화콘텐츠전공) 교수는 "자기 존중감이 높은 현 청년 세대는 사진을 자신의 가치를 도드라지게 하는 수단으로 인식해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사진 외에도 '숏폼(Short Form)'과 같은 콘텐츠가 청년층의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이 사진과 짧은 영상이 주를 이루는 인스타그램에서 유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인스타그램 업로드를 위해 사진을 촬영하는 청년층도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상명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전호식 학생은 "개인 소장이 목적이기도 하지만, 주로 인스타그램 업로드를 위해 사진 찍기에 열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상덕(경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청년층은 SNS와 함께 자란 세대로 현실 생활보다 디지털 생활에 익숙한 디지털 원주민"이라며 "인스타그램 등의 SNS가 사진 찍기 유행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물리적 실체로서 상대와 마주하지 않는다는 SNS의 특징이, 청년 세대가 스스로를 연출할 수 있는 '사진'이라는 매체에 열광하게 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기에 자신이 원하는 모습만을 드러낼 수 있다는 이야기다. 김상덕 교수는 "SNS에서는 현실에서 보이는 모습보다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외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찍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날로그 감성으로 기록하는 나

통상적으로 사진은 '기록'과 '기억'에 의미를 두며 간직된다. 현 시대에서 사진이 가지는 기록의 의미는 '사이버 상의 영구 보존'이다. 이를 두고 현 세대가 SNS 게시글을 적극적으로 포스팅하는 것을 설명하는 전문가들도 존재한다. 김용진(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일기를 쓰는 등 전통적인 형태의 기록에 비해 생산의 측면에서 편리해졌고, (청년층들)사이버 상에서의 영구 보존을 곧 삶의 영속성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기록의 의미를 두고 사진을 찍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진이 간직하는 추억과 기억, 그리고 그 증거인 기록이라 함은 아무래도 실물 사진보다는 못하다. 일회용 필름카메라의 열풍이 젊은 세대에 불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이를 두고 빠르게 변하는 사회 속에서 '아날로그 감성'을 찾는 현 청년층이 실물 사진에 매력을 느낀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날로그 감성이란 이전 세대의 것들에 흥미를 느끼는 차이를 넘어서 그것들을 새로운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일컫는다. 실제로 50년 동안 현상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용정(태양카메라) 대표는 "젊은 손님들이 필름 카메라의 오래된 느낌이 오프라인을 자아낸다고 하며 찾아온다"고 전했다. 김용정 교수는 "부모 세대의 전유물이었던 필름 카메라나 실물 사진이 현 청년 세대에게는 새로운 것

으로 다가가 흥미를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옛것을 경험해보는 것이 앞선 세대와의 새로운 소통 방식이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실제 생활에서 사진을 찍는 과정 자체가 자신을 가꾸는 행위로 인식된다는 견해도 있다. 청년층이 전문가에게 헤어 스타일링과 메이크업을 받고 의상과 배경색을 고르는 등 사진을 찍기 위한 준비 과정을 자신을 위한 투자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바디프로필을 찍기 위해 하는 운동도 이에 포함된다. 바디프로필을 전문으로 촬영하는 이시우(라이크미 스튜디오) 대표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몸을 가꾸는 데에 집중하는 청년층이 주로 손님으로 찾아온다"고 전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서용구(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구세대의 자아 실현 방식이 승진 등의 사회적 성공을 거두는 것이었다면 현세대는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그 방식이 변화하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상혁 기자 normalhyeok0927@hansung.ac.kr

제16회 사진공모전



가야 하는 길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길은 물음표가 가득합니다. 어둠이 내려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면 심장이 쿵쿵 뛰곤 하죠. 나는 당신이 길을 갈 때면 당신의 길에 발이라도 볼 수 있는 빛이라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빛은 희미할지라도 아름답게 당신과 함께 할 것이니까요.

최우수작 수상소감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뭐야?'라는 질문에 쉽게 대답하지 못해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없다는 사실에 조금은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결국 좋아하는 영화를 답하지 못한 채 20살을 맞이했고, 이후 그 영화를 찾기 위해 주구장창 영화만 봤던 것 같습니다. 너무 지루해서 졸면서 봤던 영화, 재미있거나 슬퍼서 눈물을 흘렸던 영화도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영화를 찾을 수 있었지만, 천천히 생각해보니 저는 영화뿐만 아니라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즐겁게 했던 일들을 생각해보니 가장 자주, 즐겁게, 시간 가는지 모르게 했던 일이 사진 찍기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일상생활을 기록하는 것에서 사진을 바라봤다면, 사진을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사진을 더욱 진지하게 바라보게 되었고 더 나아가 사진

속에 의미를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처음 촬영을 갔던 곳은 아버지와 함께 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입니다. 북적북적하며 활기를 띠던 DDP의 모습은 마치 없었던 일처럼 DDP의 밤은 고요하면서 외롭고, 한편으로는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몰라서 수백 번, 수천 번 고민했던 것처럼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고민과 걱정 많은 사람을 응원하면서 <가야 하는 길>을 촬영하였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어둠이 내려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길을 안내해주는 빛이 있기를 소망하며, 사진을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족함이 많은 사진임에도 최우수상을 주신 한성대신문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유빈(사회과학 2)

가작 수상소감

김하인 시인의 <청춘>이라는 시를 읽고 떠오른 시상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시 전체를 읽어 드리기에 분량이 너무 많을 것 같으니 저에게 영감을 주었던 구절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청춘 옆에는
시든 풀잎과 낙엽이 가득 실린
기차가 늘 대기 중이었던가.
바람처럼 빠르고 긴 기차.
...
가버릴 양이면
사랑이나 그리움 같은
분홍진 것들 전부 데리고
영원하나 가버릴 것이지
청춘이 지나간 뒷자리엔
쓸모없는 불만
가득히 도착한다.

이렇게 속절없이 흘러가 버린 청춘을 회고하면서 쓸쓸해지는 화자의 감성을 사진으로 구현하기 위해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철도로, 그리고 냉정하게 흘러가 버리는 시간 위에 놓인 '청춘'은 화분에 담긴 꽃들로 표현해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청춘이란 지나간 추억이며 누군가에게는 아직 그 소중함이 와닿지 않는 그저 당연한 것일 겁니다. 하지만 지나간 추억이든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든 청춘이란 그 존재만으로도 벅차고 아름다운 것이며 한번 흘러가 버리면 다시 돌아올 수 없기에 더더욱 애뜻합니다. 찬란한 청춘을 맞이하고 계신 학우분들 모두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후회 없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사진에 관심을 갖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너무도 부족한 사진이지만, 이렇게 제 나름대로의 의미에 공감을 해주시고 가작으로까지 선정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승현(인문 3)



청춘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세월을 기차길로, 그 위에 놓인 화분으로는 찬란한 청춘을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낮잠

한가로운 오후, 뜨거운 햇빛을 피해 그늘 아래서 낮잠을 자고 있는 고양이의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신민한(경제 4)



서울역

바쁜 서울의 오후, 서울로 위에서 찍은 장노출 사진입니다.

엄태규(사회과학 2)

아쉬운
작품들



바퀴

우리 각자가 살아왔던 시간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습니다. 노인과 나의 모습이 마치 앞의 자전거의 바퀴와 닮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앞에서 천천히 자전거를 끌며 걸어가는 노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사실 저 때 멀리서부터 거리를 좁히며 노인을 세 차례에 걸쳐 찍었습니다. 이 사진은 세 장의 사진 중에서 마지막 순서에 해당합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나와 노인의 사이는 가까워졌고, 터널이 끝날 때쯤 노인을 따라 잡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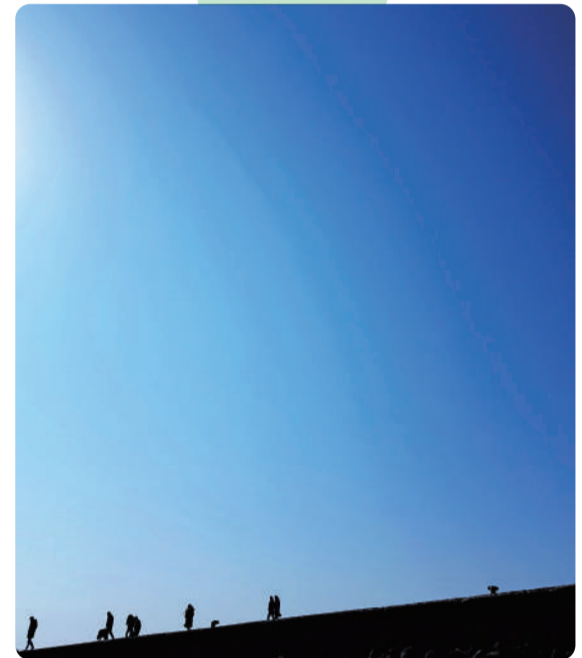
류섭규(패션 4)



노란 조끼 운동

2018년 프랑스에서 시작되어 주변 국가에까지 영향을 미친 '노란 조끼 운동(Mouvement des Gilets Jaunes)'을 직접 현장에서 담았습니다. 해당 운동에서 가장 상징적인 색인 노란(형광)색을 강조해 보았습니다.

김민재(IT 3)



靑天(청천)

바닷가에 놀러갔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마침 그날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다른 사진들과 다르게 이 사진에는 큰 뜻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의 청아하고 아름다운 하늘과 그 아래를 걷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고등학생이었던 시절 학업 스트레스가 많았던 때, 이 푸른 하늘을 보고서 답답했던 가슴이 조금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는 모든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고민과 스트레스를 잠시 내려놓고, 이 아름다운 청천(靑天)을 바라보며 부디 마음이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권민재(인문 2)

심사평



심사위원 김달호 이사
(한국사진작가협회)

약력

한국사진작가협회 제29대 이사
한국사진작가협회 자문위원
대한민국 사진대전 초대작가·심사위원
서울특별시 사진대전 초대작가·심사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지부 사진작가협회 초대 지부장

수상경력

2003년 대한민국 사진대전 특선 수상
2005년 서울특별시 사진대전 대상 수상
2012년 대한민국 사진대전 특선 수상
2017년 서울특별시 사진대전 초대작가상

소중한 일상의 순간을 영원히

안녕하십니까. 먼저 한성대신문사가 주최하는 사진공모전에 귀한 작품 출품해 주신 참가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각고의 노력과 고민 끝에 찰나의 빛의 순간을 포착해 완성된 작품을 심사하게 돼 영광스럽게 느껴집니다.

끝없이 어두워 보이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도 어느새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 속에서도, 세월의 흐름을 사진이라는 하나의 아름다운 미학으로 발전시켜 일상 곳곳의 즐거움으로 승화시켜온 부분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그 저력과 지혜를 바탕으로 한성대신문사의 사진공모전이 사진의 예술발전과 저변확대, 나아가 지역발전까지 나아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고심해 아래와 같이 심사했습니다.

최우수작 <가야 하는 길>은 출품인이 소개했듯 어두운 주위 환경에 드리워진 빛을 통해 누군가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픈 소망이 잘 표현돼 있으며, 설명에만 그치지 않고 보는 이로 하여금 또 다른 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게 만드는 작품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대인의 힘든 현실을 잘 대변해 주는 사진이라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만, 주제 표현에 넓고 어두운 앵글이 주로 사용된 만큼 시선을 사로잡는 부제가 잘 드러나지 않은 점이 아쉬웠습니다.

가작 <청춘> 역시 일상 속의 평범하고 우리에게 친숙한 소재지만, 보는 이로 하여금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시각을 바탕으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게 하는 작품입니다.

이 밖에도 수상작에는 들지 못했지만, 신민한(경제 4) 학생의 <낮잠>도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지나다니는 공간에서 편히 자는 고양이를 통해 인간과 동물의 상생을 보여줘 보는 이까지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작품입니다. 엄태규(사회과학 2) 학생의 <서울역>도 장노출을 적절히 활용하였고 구도와 노출, 초점까지 돋보이는 작품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류섭규(패션 4) 학생의 <바퀴>, 권민재(인문 2) 학생의 <靑天(청천)>, 김민재(IT 3) 학생의 <노란 조끼 운동>도 아쉽게 수상작에 들지는 못했지만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금번 공모전을 통해 사진을 즐기는 분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고, 사진이 여러분의 일상에 더 자리 잡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희망하며, 제16회 사진공모전에 참가해 주신 참가자분들과 수고해 주신 모든 관계자분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노고 끝에 출품해 주신 소중한 출품작이지만 선정되지 못한 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리며 이번 공모전 심사평을 마무리합니다.

'상경계열 우대', '이공계열 우대'. 기업들이 내놓는 신입사원 채용공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격요건 중 하나다. 하지만 그중에 기초학문을 전공한 학생들을 우대해 채용한다는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기초학문이란 응용학문의 밑바탕이 되는 학문으로, 주로 인문학이나 자연과학을 일컫는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기초학문이 위기에 처했다'는 이야기는 이제 별다른 충격을 안겨주지도 않는다. 이런 추세는 '지식의 상아탑'이라 불리는 대학에 서까지 예외가 아니다. <한성대신문>은 기초학문이 당면한 위기와 원인을 알아보고, 문제를 타개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호에 걸쳐 기획 기사를 송고한다.

한혜정 기자 hhj716@hansung.ac.kr

이제는 빛날 때, 기초학문 ③

본지는 577호 「어두운 현실 아래, 기초학문 ①」과 578호 「현실과 이상의 괴리, 기초학문 ②」에서 기초학문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 알아보고 그 원인을 분석했다. 기초학문 전공은 학생들에게 선호되지 않으며 가장 큰 원인은 낮은 취업률이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원인들이 기초학문을 낭떠러지로 밀어내고 있었다. 현재에 이르러 기초학문은 대학 내에 독립적인 학문이 아닌 응용학문 주변부에 위치한 '들러리'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어떻게 하면 기초학문은 이러한 예측의 사슬을 끊어내고 온전한 학문으로 독립할 수 있을까.

우선 점진적인 해결책으로 기초학문에 대한 인식 개선이 꼽힌다. 대학을 바라보는 시선과 기초학문을 판단하는 잣대를 재정립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학계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기초학문이 현실사회의 문제와 연계돼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나가는 과정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박정하(성균관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 소장은 "기초학문의 연구가 사회 문제 해결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바를 보여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초학문 진흥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의 방안이 제시되기도 한다. 인하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한 이예원(25) 씨는 "기초학문 부흥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은 현재 널리 퍼진 기초학문에 대한 오해 개선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당면 과제로써 제기되는 기초학문과 응용학문의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기초학문인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와 응용학문인 이공분야 학술연구의 올 한해 배정 예산 차이는 총 약 2,400억 원 이상이다. 민경찬(연세대학교 수학과) 명예교수는 "기초학문에 대한 연구는 장기적 안목에서 일종의 '물지마' 연구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러한 환경이 조성될 때 호기심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실패가 이뤄지면서 창의적 연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은 국가의 인재를 배출하고 연구 성과를 이룩하는 일에 대한 투자로 인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정부 주도의 재정적 지원이 대학의 발을 묶어놓았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대학을 운영하는 자금을 지나치게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한국 대학은 등록금과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작년 1월 8일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발간한 「2020년 사립대학재정통계 연보」에는 사립대학의 2019년도 결산 결과가 담겨 있는데, 총 교비회계 수입 중 등록금이 53.7%, 국고보조금이 15.5%를 차지했다. 박 소장은 "대학의 재정적 토대는

고려되지 않은 채로 마구잡이로 대학 수가 증가하면서 결국 국가의 재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고착화됐다"며 "대학의 주요 수입이 등록금과 국가의 지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의 통제에 따르는 것은 대학이 생존하는 방식"이라고 전했다. 박일우(계명대학교 Tabula Rasa College) 교수는 "대학의 자율성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대학의 자율이 사라진 지난 세월동안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의 수준은 저하됐다"고 비판했다.

재정 지원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반면, 현재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응하는 세밀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기초학문 연구를 이어나갈 수 있는 후속 세대 양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후속 세대 양성을 위해서는 대학의 연구 기능이 강해져야 하고, 이를 도맡는 대학원이 기능을 되찾아야 한다는 말이다.

상황이 위기를 초래했다"며 "공유의 개념이 도입된다면 기초학문의 교육과 연구 모두에서 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학원 외에도 별도의 기초학문 연구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른다. 현재 기초학문 부흥을 위해 설립된 대학부설연구소에는 서울대학교의 인문학연구원, 경희대학교의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 영남대학교의 민족문화연구소 등이 있다. 이처럼 현재는 대체로 대학이 자체적으로 연구소를 부설하는 형국이지만,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국가가 대학 내에 연구소를 설립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는 논리다. 박 소장은 "현재도 교내 연구를 지원하는 방식의 사업은 있어왔다"면서 "대학 내에 국가 주도의 연구소가 위치하는 미국 등의 사례를 참고해보면, 해당 모델은 국가와 대학, 양측의 인력이 모두 활용된다는 점에서 훨씬 유용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맥락으로 학과 구조조정 개편 방향에 대한 새로운 시각도 있다. 비록 해당 학문의 학과는 사라지더라도 해당 학문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 집단은 남아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학문 자체는 대학에서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대표적으로 철학과가 사라진 대학에 교양대학 등으로 철학과 교수들이 편입된 사례가 있다. 박 소장은 "현재 한국 대학에서 발생하는 학과 구조조정은 학문 자체를 삭제하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대다수기 때문에 문제"라며 "특정 학문의 교육자만 존치시킬 수 있다면 오히려 학문 간 경계가 사라져 학생들에게 융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교수들의 반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손학장은 "어떤 학문을 전공한 교수가 해당 학과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보다 깊은 수업을 제공하고 싶어 하는 것이 통념"이라며 "하지만 미국, 유럽 등의 사례를 살펴보면 학과의 칸막이가 명확하지 않은데, 외국의 경우가 학생이 다양한 공부를 하기에는 더 적합하다"고 전했다.

더불어 정부의 대학 평가가 대학과 학과의 특성을 고려해 전면적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전언이다. 다만 이 시안은 별도의 기초 학문 대상 평가가 추가돼야 한다는 의견부터 정부 주도의 대학 평가 철폐까지 그 정도는 상이하다. 손학장은 "기초학문 교육의 양과 질을 모두 따질 수 있는 항목이 필요하다"며 "현재 대학 평가 방식은 설명 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미적분과 물리학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이 없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의 대학 평가 철폐는 정부와 교육 현장의 mismatch를 지적하며 제기됐다. 박 교수는 "대학 평가는 학생을 비롯한 국민들이 해야 한다"며 "현재 대학을 평가하는 기관들이 교육 현장에 있는 교수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다양한 해결책들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지적 선진국'으로의 도약은 어렵다고 경고한다. 과거 서양에서 다양한 학문이 발전하기 시작했고 동아시아는 그 학문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수행했는데, 한국은 아직 수용자로서의 역할에 머물러 있는 형편이다. 이웃나라 일본이 1980년 이후로 '학문의 자급자족' 시스템을 갖춰나가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실제로 일본은 기초과학에서 노벨상을 휩쓰는 국가로 손꼽힌다. 손학장은 "대학 교수 채용에 있어서도 외국 학위를 국내 학위보다 우대하는 풍토가 있는데, 외국에서 새로운 이론을 배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라며 "한국은 경제적으로 급진적인 발전을 이뤄냈지만 그 토대가 되는 기초학문 이론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고 토론했다.

“지적 생태계에서 한국의 위치가 식민지인 이유는 학문의 자급자족을 이뤄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연구 주제를 하달하는 방식이 아닌 연구자가 원하는 주제와 방식을 실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전한다. 한국연구재단의 이사도 활동했던 손동현(우송대학교 교양대학) 학장은 "정부에서 지정하는 연구 주제가 많은 편인데, 연구비 조달을 위해서 이를 외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핏 보면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연구를 주도하는 것이 실용적이지 않아 보이지만, 이편이 결국은 학문적 쓰임새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대학원의 운용 방식에 대해서도 여러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우선, 교수의 연구를 보조하는 '조교로서의 대학원생'은 사라져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된다. 민 교수는 "앞으로는 교수의 연구를 지원하고 협업하는 역할을 대학원생이 감당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대학원 인원을 보완하기 위해 '공유'의 개념이 고개를 들고 있다. 개별 대학과 학과 내에서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주위의 대학과 협력하는 방법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민 교수는 "기초학문이 캠퍼스 내에서, 그리고 교수 개인 중심으로 존재하는 폐쇄적인

이처럼 기초학문의 후속 세대를 길러내려면 학문 깊이를 전공할 학생과 사회로의 진출을 꿈꾸는 학생을 구분해 교육해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기초학문 학부만 졸업해서는 전공 지식의 생산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 진출을 원하는 전공자에게는 별도의 커리큘럼이 갖춰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덧붙인다. 민 교수는 "대학은 교육 기관이므로 학생 중심으로 운영돼야 하며, 그에 따라 학생의 미래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면서 "학문의 길을 가지 않을 학생들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지원이 중시되며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원 채용 형태도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기초학문 전공의 전임교수 비율을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임교수란 해당 전공의 연구와 교육을 전적으로 수행하는 교수를 의미한다. 이외에 대학에는 겸임교수, 초빙교수 등의 다양한 교강사 형태가 존재하지만, 전임교수에 비해 업무 범위가 협소하다. 손학장은 "기초학문 전공 교수자가 속한 교양 교육 과정 등에는 전임 교수가 별로 없다"며 현실을 전했다.

0287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한성대신문사

제보하기

합리적인 학생사회를 대변하고 학생사회에 진실을 전하겠습니다

Tel : 02)760-4186

Fax : 02)760-4389

E-mail : hansungnews@gmail.com

kakao : @hansungnews

instagram : @hansungnews

facebook : @hansungpresscenter

<편집자주>

최근 몇 년간 대학 내 성비위(性非違)는 이제 화젯거리조차 되지 않는 모양새다. 언어적·신체적 성폭력, 데이트 폭력, 스토킹, 불법촬영 등은 물론, 디지털성범죄 역시 대학 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가해자는 학생, 교수, 직원 등으로 다양하다. 이 사태를 보고 있자니 대학이 과연 성범죄와 관련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

끊임없이 터지고 있는 대학 내 성비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이고도 올바른 해결책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대학 내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성교육을 강조한다. 예방교육에 그쳐 있으며, 그마저도 효과를 찾아볼 수 없는 현재의 대학 내 성교육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한성대신문>은 대학의 성교육이 현재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필요성과 구체적인 교육 방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한혜정 기자 hjh716@hansung.ac.kr



예방만 외치다 실패한 대학의 성교육

대학 내 성교육 미비한 실정 대학 내 성범죄 증가와 유관 방식과 내용 모두 개선 필요 포괄적 성교육으로 나아가야

우선 대학은 법률적으로 성교육 실시의 의무가 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대학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음이 명시돼 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대학 내 성교육은 개개인이 아닌 단체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두고 교육 자체가 일방적인 내용 전달에 그치게 돼 개인의 성 가치관을 제고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정혜경(젠더리더십트레이닝센터) 대표는 “대규모 교육은 물론 시청각을 비롯한 사이버 교육으로는 다양한 층위의 구성원이 처한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성교육을 진행하는 강사의 자격에 대한 논란도 식지 않는 논쟁거리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의 자격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민간에서 남발하는 민간자격증만으로는 충분히 자격을 검증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경은(젠더교육센터-HU) 대표는 “국가자격증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는 매우 오래 전부터 진행됐다”며 “성교육이란 인식과 가치관이 반영된 의사결정에 대한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으로서 큰 틀의 기준이 필요하기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렇듯 대학에서 성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현실에 성(性)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인식과 시각이 한몫했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성을 논하는 것을 터부시한 나머지, 단기간에 가시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없는 성교육의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합의 과정이 전무하다는 말이다. 문 대표는 “성교육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배워나가는 과정이지만, 현재 그 이해를 성적인 접점으로 한정 짓는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있다”며 “좋은 연애와 타인과의 관계 등에 대해 질문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학내를 만들기 위해 성교육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란(서울여자간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는 “과거에 비하면 덜 보수적이고 폐쇄적으로 변해가고 있기는 하다”며 “앞으로도 지금까지처럼 점진적으로 성에 대한 논의가 닫히지 않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대학 내 성교육의 부재가 대학 내 성범죄가

증가하는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로 전국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건은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찬민(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82건이었던 대학 내 성범죄는 2019년에 346건이 발생하면서 약 2배가량 증가했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성교육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폭력예방교육이 필요한 이유”라며 “대학 내 성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법 중 하나가 성교육인데, 간단한 문화 형식 및 강력한 처벌 등과 병행한다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내 성교육 참여율은 처참하다. 대학알리미에 공식된 2021년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학생참여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학이 총 944개 대학 중 731개에 이르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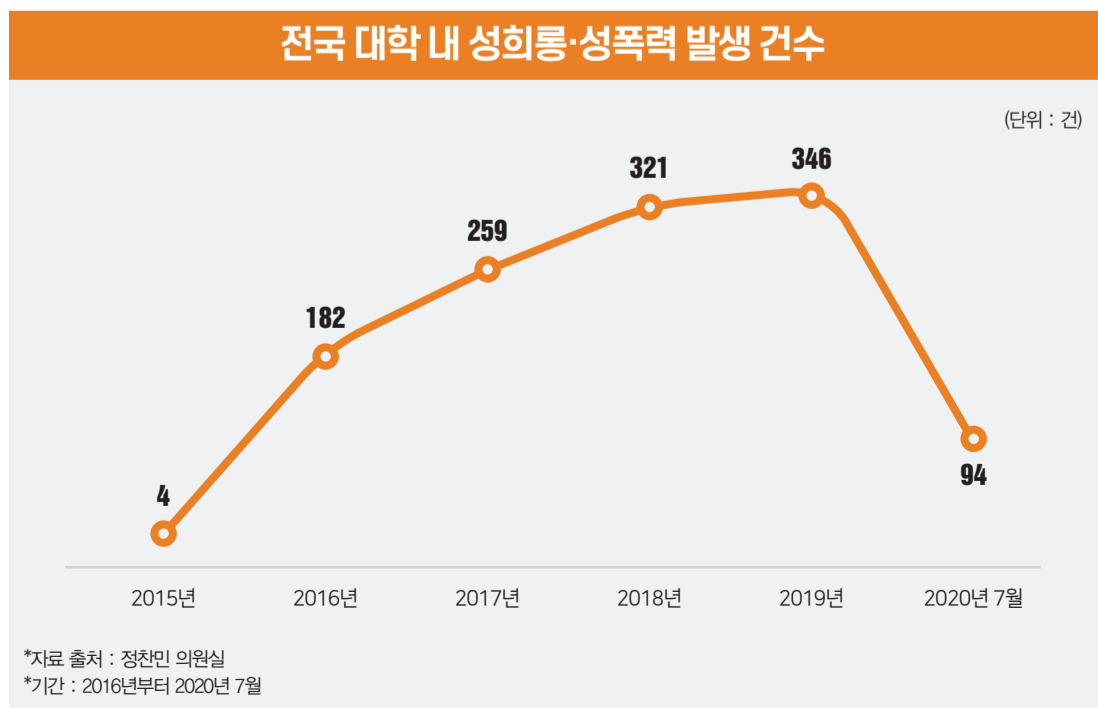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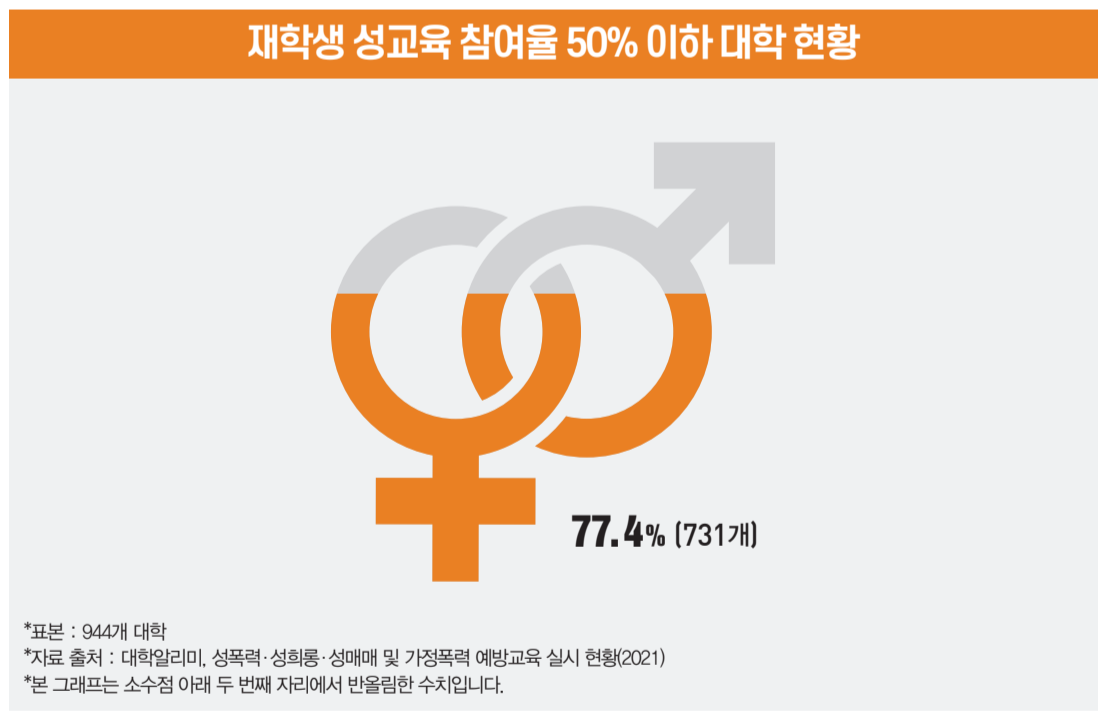
다. 심지어 학생참여율이 한 자릿수에 그친 대학은 483개로 과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성폭력방지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이에 따른 점검을 매년 실시함으로써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에 대해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학교 혹은 학교의 장에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에서 “예방교육 실시 의무는 기관장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구성원들의 참여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할 때 대학의 예방교육 실시율은 낮은 수준”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직원은 인사사고와 접수를 반영하는 등 참여를 권고할 수단이 있지만, 이외의 구성원들은 강제할만한 수단이 전무하다시피 하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성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맥락적 성교육이 아닌 단순 범죄 예방 차원의 성교육만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교수는 “우리 사회가 초점을 맞추는 성교육은 폭력예방”이라며 “성교육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이 폭력으로서의 성에서 삶 속에서의 성으로 바뀌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대학 내 성교육의 방식과 내용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피교육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일회성 교육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말이다. 소규모 토론 방식이 구체적 해법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또한, 대학 내 학점 인정 강좌의 개설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대학에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존재하고, 같이 보이는 구성원 사이에서도 크고 작은 층위가 있다”며 “모두 다른 구성원에게 일괄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교육이 실시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기에 각각의 위치성과 책무를 살필 수 있도록 토론 형태의 수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종민(사단법인 푸른아우성) 교육팀장은 “성교육은 평생교육이므로 대학생에게도 필요하다”며 “학생 모두가 성교육을 받는 절대적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학점 인정 강좌 의무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역시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방안에서 효과적인 교육의 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강의나 교육에 대한 피드백 과정이 거의 부재한 것이 문제로 꼽혔다. 이 교수는 “미국에서 교수로 재직했을 시절, 교육 후에 검증을 받는 일종의 시험이 있었다”며 “통과되는 기준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러한 피드백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인권과 성평등에 기반한 포괄적 성교육(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이 대학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포괄적 성교육은 성에 대한 인지적·정서적·신체적·사회적 측면에 대해 배우는 교육과정으로, 자신의 능력, 건강과 복지, 존엄성에 대한 인식 능력, 존중에 기반한 사회적·성적 관계 형성 능력 등을 높일 수 있는 지식·기술·태도·가치를 갖추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실제로 성윤리와 생명윤리, 도덕적 가치관, 남녀의 사회적·심리적·생물학적 이해, 가족의 중요성 등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적인 성교육은 국제적 추세로 떠오르고 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위험한 행동의 감소 ▲콘돔 사용 증가 ▲피임 증가 등이 포괄적 성교육의 주요 성과로 제시돼 있다. 교육부 역시 대학 내 성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는데, ▲예방교육 외의 성 인식 개선 프로그램 ▲인권 및 평등 관련 교육 ▲다양성 포괄 교육 등의 의견이 모였다. 문 대표는 “포괄적 성교육에서 지향하는 성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단계적이고 섬세한 계획이 요구된다”며 “대학에서는 초·중·고 등에서 진행된 성교육이 올바르게 실천되는 방식으로서의 교육이 진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 교육팀장은 “포괄적 성교육이 단순 예방교육의 대체제가 되지 않으려면, 걸맞은 여건과 절대적 교육 시간이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년을 발판 삼아, 이승로

지난 6월 1일 이뤄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열린 공방이 펼쳐진 결과, 이승로(더불어민주당)가 총 100,227표(50.26%)를 득표하며 민선8기 성북구청장으로 당선됐다. 이미 2018년부터 민선7기 성북구청장으로 활동하던 이 구청장은 이번 선거로 재선에 성공했으며, 2026년까지 재직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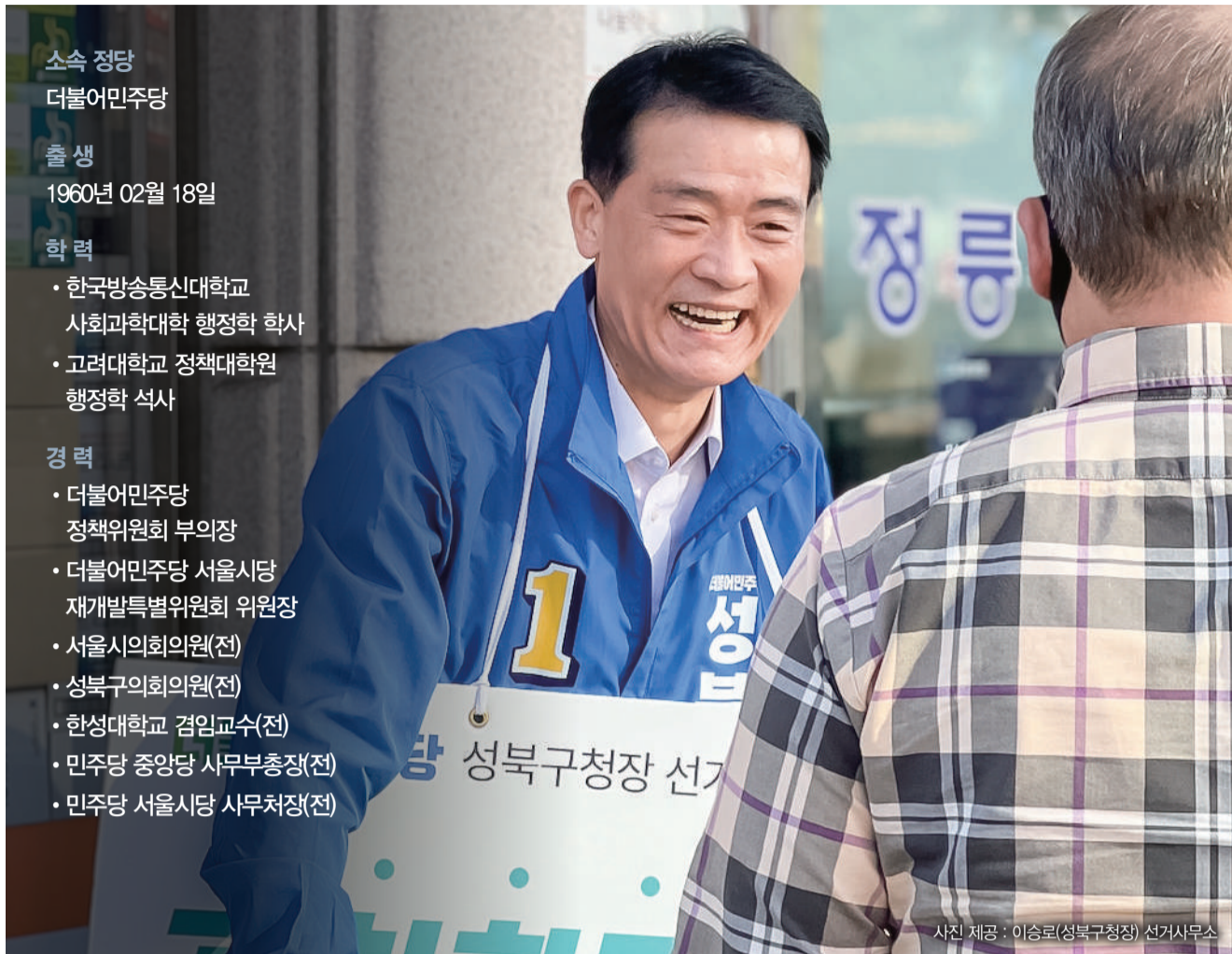
청년의 기회가 살아있는 성북으로

이 구청장이 강조한 것은 지난 임기부터 최대한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했던 청년정책을 이어가는 것이다. 지난 4년간 그는 이를 위해 ▲캠퍼스타운 ▲청년창업거리 ▲도전속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등의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이번 임기 동안 기존 정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 구청장은 "성북구청장으로서 청년의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성북구는 언제나 청년 옆에서 도와줄 것"이라고 전했다.

'캠퍼스타운'은 대학과 지역 주민이 상생하며 '청년 일자리 문제', '주변 상권 침체'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현재 분교를 비롯한 성북구 내 6개 대학에서 시행·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더해 지난 2월 ▲한성대학교 ▲고려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서경대학교 등 4개 대학은 '성북클러스터'를 체결하며 각 대학별 캠퍼스타운 사업의 협력을 약속했다. 성북클러스터는 4개의 대학이 각각의 장점을 살려 프로젝트 등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 구청장은 "한성대학교는 지난 4년간 15개 이상의 유망 스타트업을 육성했으며, 10개 이상의 기업이 창업지원 사업에 선정됐다"며 "청년이 자신의 대학에서 나아가 성북구 속 취업과 창업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성북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창업거리'는 길음동 삼양로에 위치한 거리를 통칭한다. 과거 유해업소 밀집 지역이었던 삼양로는 이 구청장이 민선7기 구청장으로 당선된 직후 단속을 통해 유해업소의 폐업이 이뤄졌으며, 이후 청년창업가계의 입점이 시작되면서 청년창업거리로 탈바꿈했다. 작년을 기준으로 총 37개의 유해업소 중 20개의 업소가 문을 닫았으며, 이를 대신해 6개의 청년창업가계가 들어선 상황이다. 이 구청장은 "현재 대다수의 유해업소가 사라졌고, 창업거리로 인해 삼양로의 분위기가 바뀐 것"이라며 "유해업소의 폐업은 지속해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전속' 역시 주택의 추가적인 공급을 통한



- 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 출생**
1960년 02월 18일
- 학력**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 학사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
- 경력**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재개발특별위원회 위원장
 - 서울시회의의원(전)
 - 성북구의회의의원(전)
 - 한성대학교 겸임교수(전)
 - 민주당 중앙당 사무부총장(전)
 - 민주당 서울시장 사무처장(전)

정책 강화가 예정돼 있다. 도전속은 1인창조기업인을 비롯한 관내 대학 창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숙박 및 사무실 등이 제공되는 주택이다. 모집대상은 ▲1인창조기업인 ▲사회적기업인 ▲관내 대학 창업 준비생이며, 서울에 거주하는 1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한다. 도전속은 2014년 도입된 후 매년 추가로 건축되고 있으며, 이 구청장은 올해 안에 약 열 채의 주택을 추가로 지을 계획이다. 이 구청장은 "도전속은 청년주택과 비슷한 개념으로 청년들이 도전에 일일 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의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성북구라는 하나의 지역에서 생활부터 미래에 대한 설계까지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업 초기에 청년을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역시 이 구청장이 이어갈 정책이다. 이를 통해 청년은 31개사가 지원하는 ▲입주서 ▲회의실 ▲멀티미디어실 ▲사무실 등의 기자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창업 교육부터 법률 상담까지 사업 전반의 지원 역시 제공받을 수 있다. 성북구의 1인창조기업지원센터는 2011년 개소 이후 2022년 3월까지 ▲신규 창업(114개 사)

▲고용 창출(283명) ▲지식 재산권 출원(123건) 등의 성과를 냈다. 이 구청장은 "청년의 1인창조기업은 초기에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며 "IT 사업부터 요식업까지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서 창업하는 청년을 도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의 청년정책을 유지·확장시키는 것 이외에도 '청년창업센터' 신설에 대한 계획 역시 수립 중에 있다. 청년창업센터는 청년의 창업에 있어 제반 환경뿐만 아니라 상담 등을 통한 가이드라인을 세울 수 있는 복합 공간이다. 이 구청장은 "2024년까지 청년창업센터를 신설할 수 있도록 400평 규모의 토지를 비롯한 예산도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성북을 하나의 문화 도시로

이 구청장은 청년에 국한하지 않고 성북구를 문화 중심지로 만드는 것 역시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2월 밝힌 '6대 주요 과제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역 상권을 살리며 세대 통합을 이룰 것'이라는 방침이다.

6대 주요 과제는 ▲함께 나눔 복지도시 ▲균형발전 스마트도시 ▲사람중심 친환경

도시 ▲민생경제 재도약도시 ▲일상의 여유 문화도시 ▲성북의 자부심 자치도시 성북 등으로 구성됐다. 그는 세대별 정책 세분화를 통해 성북구민 전체의 문화 및 복지지는 물론 성북구의 발전까지 도모할 예정이다. 이 구청장은 각기 다른 정책 이외에도 '길음뉴타운 복합문화센터', '평생학습을 위한 성북시민대학 개원' 등을 통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 역시 계획 중에 있다. 그는 "성북구민이 43만 명에 달하는 만큼 필요한 복지 정책이 모두 다룰 수밖에 없다"며 "세대별 정책은 물론 전 세대를 위한 시설까지 마련해 모두가 복지를 누리는 성북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6년 시작돼 현재까지 이어져 온 '장위뉴타운 사업'도 계속될 예정이다. 장위뉴타운 사업은 서울특별시 뉴타운 3기 산업으로, 광운대학교 남쪽 일대의 장위동 지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인근의 '드림랜드'와 함께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하고자 추진됐다. 2009년 10월, 드림랜드는 '북서울꿈의숲'으로 재개발됐으며 총 15개의 주거 구역 중 1·2·5·7구역은 완공, 3·4·6·10·14·15 구역은 진행 중에 있다. 사업이 취소된

8·9·11·12·13구역의 경우, 완전 취소된 13구역을 제외하고 공공재개발로 전환돼 사업이 이어지고 있다. 이 구청장은 "장위뉴타운을 문화 구역으로 만들어 성북구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도시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위한 별도의 TF*팀을 구성해 총 55개의 도시 개발 사업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이 구청장은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더불어 지역 상권에 활력이 돌며 발생하는 일자리를 생계형, 청년, 어르신 등으로 분류하고, 이를 통해 세대별 일자리와 별도의 창업 지원 역시 구상하고 있다. 지역 상권을 살릴 방안으로는 '지역 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패션봉제·문화예술 특성을 살린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계획 중에 있다. 이 구청장은 "지역 상권이 살아나며 다양한 세대가 일자리의 지원을 받는다면 나후 이미지를 벗어나 세대 통합 문화여가도시로 거듭날 것"이라며 "청년부터 지역, 행정까지 이어진 '하나의 성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북구가 현재 지니고 있는 '주차장 부지 확보'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 구청장은 성북구 학교 운동장 지하 활용 등을 비롯한 유류부지 확보를 통해 권역별 주차 공간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며, 기존의 공간 사용 이외에도 추가적인 주차장을 건립하는 등의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그는 "주차 부지 확보 문제는 전 세대의 문제다. 도보 10분 내에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해 성북구 내 활동이 용이하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 4년을 성북구청장으로 재임해 쌓은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험자로서 취임 첫날부터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 청년과 주민과 행정 주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성북구로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들이 비록 실패하더라도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성북구를 계속해서 발전시킬 것이다. 청년이 희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정비구역 :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정비가 필요하다고 고시한 구역

** TF : 특정 분야에 있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성되는 특별 조직으로, 태스크포스(Task Force)의 줄임말

이준혁 기자 junheuk0622@naver.com

K-디지털 챌린지: 2022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

참가신청
5.31.(화) - 6.28.(화)

참가자격
메타버스 서비스·콘텐츠 개발에 관심 있는 국민(학생/일반)

신청방법
홈페이지(www.metaversedev.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수상작 발표 및 시상
결과발표 홈페이지(https://www.metaversedev.kr/) 공지 및 수상자 개별통지

시 상 '22년 10월 중(KMF 행사와 연계하여 시상)

시상내역
총 상금 2억 2,900만원
▲대상 2명 ▲최우수상 4명 ▲우수상 25명 ▲장려상 12명

문의처
K-디지털 챌린지:2022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
☎ 02-6012-7916
✉ contest@metaversedev.kr
📍 카카오톡에서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 검색

· 삼 학 송 ·

한성대신문사를 떠나, 다시 한 명의 독자로

‘한성대신문사는 학생의 눈이자 귀가 되어 하는 대학언론의 정도를 걸으며, 학생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대학사회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지난 <한성대신문> 574호의 새내기 기획 기사에서 인터뷰한 내용 중 하나다. 본인은 임기를 마치는 지금까지, 학생이 ‘알아야만 하는’ 정보를 기사로 담아내는 것을 제1순위로 삼아 불철주야 달려왔다. 그러나 편집국장으로서 발행한 11번의 신문이 학생의 눈과 귀가 되고 그들의 알 권리를 보장했는지, 대학사회의 민주주의를 수호했는지 판단하는 것은 이제 오직 독자의 몫이다.

언론의 신경이 가장 쏠리는 부분은 어디일까. 단연 ‘독자’라 말하고 싶다. 이종태 <시사IN> 제8대 편집국장은 ‘제일 무서운 것은 정치·경제 권력이 아니라 독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대학언론의 독자는 누구일까. 학내구성원부터 지역사회 주민, 나아가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생과 청년을 포함한다. 그러나 대학언론이 주목해야 할 진정한 독자는 ‘학생’이다. 학보사의 존재 이유가 학생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대학언론을 구성했으며, 학생을 대신해 목소리를 냈다. 학생을 지키기 위해 탄생한 것이 바로 학보라는 말이다.

그 맥을 이어받아, 여전히 학보사의 기자들은 학생 신분으로 대학본부와 학생회에 척을 지는 일을 몸소 나서서 굳이 도맡는다. 일반 학생들의 알 권리를 위해 주야를 불문하고 신문발행에 목을 맨다. 이따금 교수와 동기들에게 ‘누가 알아준다고 그렇게까지 하냐’는 등의 쓴소리를 들어도 개의치 않는다. 모든 것은 기자라는 ‘사명감’에서 나온 힘이 자 독자에 대한 ‘책임감’일 것이다.

독자들에게 단 하나,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한다. 학내 커뮤니티를 보면 대학본부나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불만 글이 하루가 멀다 하고 게재되고 있으며, 많은 학생의 공감을 사곤 한다. 그러나 본사로 접수된 제보는 그에 비해 현저히 적은 실정이다. 학생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소통의 창구인 대학언론에 기대는 이가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

학생이 읽지 않는 학보는 필연적으로 무너지기 마련이다. 대부분의 출판물이 그렇듯, 기사 역시 독자가 읽으므로 완성된다. 본인은 비록 기사에 대한 날 선 피드백일지라도 반가웠다. 때때로 그저 ‘읽었다’는 이야기도 힘이 됐다. 취재의 깊이나 기획력에 대해 칭찬을 받았으며 뿌듯함을 느끼는 기자들을 보면, 발행 기간 쌓였던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곤 했다. 이렇듯 독자란 학보사 기자에게 상상 이상으로 힘이 되는 존재다. 무심코 지나쳤던 신문을 읽어보는 것이 어떨까. 때로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마지막 장에 도착해 있을 것이다.

인생을 하나의 장편소설이라 하면, 한성대신문사에 몸담았던 순간은 하나의 문장과 같다. 어쩌면 순식간에 읽힐지도 모르는 짧은 문장과도 같은 순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음에 감사할 뿐이다. 또한 한성대신문사의 기자로서, 그리고 편집국장으로서 살아왔던 경험을 내 삶의 이야기 속에 녹여낼 수 있음 역시 영광이다. 본인은 이제 앞으로 발행될 모든 <한성대신문>을 기대하며, 지난 2년의 페이지를 넘긴다. 한성대학교의 학생이자 일원으로 돌아가 <한성대신문>의 독자로써 함께하겠노라 약속한다.

신혜림 편집국장

■ 의화정

‘어쩌다’와 ‘아무튼’

‘어쩌다’라는 부사가 제목으로 자주 쓰인다. tvN의 <어쩌다 사장>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은 별안간 시골 마을의 마트를 운영하게 된 두 배우의 모습을 그렸다. 이 제목은 2015년부터 방영된 같은 방송사의 <어쩌다 어른>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어른’과 ‘사장’이라는, 어쩐지 어렵고 권위적인 대상이 사실은 대단한 이유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일까. 두 프로그램에서는 어른이 되고도 서툰, 사장이 되고도 서툰 사람들의 배움을 다루었다.

‘아무튼’이라는 부사도 자주 보인다. MBC의 <아무튼 출근>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각양각색의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업무 일상을 보여주었다. 이 제목은 출판사 ‘위고’, ‘제철소’, ‘코난북스’ 세 곳에서 번갈아가며 출간하는 에세이 ‘아무튼’ 시리즈에서 따온 것으로 보이며, 지금껏 이 시리즈는 『아무튼, 피아노』, 『아무튼 요가』, 『아무튼 술』, 『아무튼 비건』, 『아무튼 아이돌』 등 49권이 나와 있다. 여러 분야에서 이름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각자 좋아하는 것에 대해 신나게 수다를 떠는 책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 밖의 여남은 일이야 분별할 줄 있으라”라고 노래한 윤선도가 떠오른다. 윤선도는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도리와 신념을 노래하였지만, 오늘날의 도(道)가 어찌 하나로 모아질 수 있을까.

다양한 삶의 풍경 속에서는 일이든 취미든 마음 둘 곳을 찾아 매진하는 모습 자체가 귀하고, 각자에게 그 일은 ‘아무튼’ 해야 하는 것이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무언가가 되고자 하는 바람은 어느 때고 모습을 바꾸어 가며 있다. ‘뫼’의 순간이 언제 오는지에는 참으로 변수가 많아서 우리는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그 순간을 맞이하기도 하고 준비를 넘치게 하고도 기다리기도 한다. 늦든 빠르든 그 순간은 ‘어쩌다’일 때가 많다. 그러니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늘 준비하고 있으라는 교훈도 좋지만, 갑작스럽게 찾아 온 ‘뫼’ 앞에서 ‘뚝딱’거리는 자신을 잘 보듬고 잘 키우려는 교훈도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후는 ‘아무튼’이다. ‘의견이 나 일의 성질, 형편, 상태 따위가 어떻게 되어 있든’이라는 뜻풀이는 ‘아무따’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의 맹목성을 연상시킨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는 어떠한 선택과 결정에서 파생되는 불편들과 잡념들과 부작용을 ‘일단’ 괄호 안에 넣는 용단(勇斷)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무튼 일하고 아무튼 공부하고 아무튼 좋아하면 어떨까. 그러다가 문득 뒤돌아보았을 때 발견되는 것이 각자의 도(道)가 아닐까.

정보미(문학문화콘텐츠학과) 교수

김 기자의 시선



초점 잃은 ‘호국보훈’

3·1, 6·6, 8·15. 나라와 역사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스러져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얼이 담긴 숫자다. 그러나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본질은 흐려진 채, 그저 ‘공휴일’로 인식하는 이들이 많아져 안타깝기만 하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호국(護國)은 나라를 지키는 뜻으로 ‘의무’이며, 보훈(報勳)은 공로에 보답한다는 의미로 곧 ‘책임’이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수많은 헌신을 결코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와 역사와 민족을 지킨 이들의 희생을 책임 다해 되새기길 바란다.

김지윤 기자 jizhey@naver.com

■ 기자수첩

‘경청하고, 분노해, 용기를 내는 사람’. 작년 개강과 함께 한성대신문사에 입사하기 위해 썼던 자기소개서의 한 대목이다. 기자는 모름지기 소리의 위치와 크기에 상관없이 들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후 분노까지는 아닐지언정, 불편함 정도는 느끼고 결국은 글을 통해 용기를 내는 사람이라고 여겼다.

학보사의 일선 기자로 일하면서 경청과 분노, 그리고 용기라는 3가지 기준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기사는 학내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례를 다룬 보도다. 신뢰미상의 인물이 교내 학생들에게 선배임을 사칭하며 연락을 취해 온 사건이었다. 기자는 피해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인터뷰를 진행했다. 대면과 화상, 유선과 서면 등의 방식을 가리지 않았고, 밤낮 할 것 없이

편집국으로 이사를 준비하며

연락만을 기다렸다. 혹시나 놓친 부분이 있을까 학내 커뮤니티 역시 시시때때로 살폈다. 인터뷰를 비롯한 취재를 바탕으로 설문 조사도 실시해 수백 개의 응답을 분석하며 기사를 작성했다.

취재 과정 중에 감정이 북받쳐 말문이 막히는 순간도 많았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피해를 호소할 공간이 한성대신문사뿐이라는 사실이 한결로 씁쓸했다. 언론은 문제 해결의 마지막 창구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 학생들이 느꼈을 공포감과 두려움에 대해 무심한 학생회와 대학본부가 원망스러웠다. 특정 학생회를 취재하면서 피해 사례에 대한 학생회 차원의 해결방안을 물었는데, 해당 사건의 발생이 본인의 잘못이냐고 반문하는 학생대표를 만나기도 했다. 사후 처리보다는 자신의 인위를 먼저 챙기는 이를 보며 실망을 거듭했다. 학생회를

도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학본부의 대응도 마뜩잖았던 것은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후속 보도를 이어 나가는 것은 일종의 용기였다. 2번의 발행에 걸친 취재에서 일부 학생대표 측과 갈등을 빚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발생하는 사건과 미적지근한 대응은 학생들이 두려움을 느끼기에 충분했고, 기자가 후속 기사를 작성하기에 당연했다. 편집국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학기부터도 초심을 잃지 않고, 반짝이는 정신으로 신문을 만들어 나가겠다. 앞으로 주어진 기간 동안 독자에게 미치근한 온도로 다가가고 싶지 않으니 말이다. 임기 동안 <한성대신문>이 본교 구성원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에 더욱 힘써 한성대학교가 진보하는 걸음에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본다.

한혜정 기자 hhj716@hansung.ac.kr

■ 낙산에 올라

해가 뜨겁다. 아직 바람은 선선하다. 놀기 좋은 날씨다. 이런 날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프라인 수업이 확대되면서 학교에는 이제 사람 소리가 들린다. 삼삼오오 무리지어 다니기도 하고 홀로가 되었는데 다시 강의실 안에 모여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낸다. 그들의 시간을 가만히 바라보다 보면 예외 없는 무기력함이나 우울과 만나게 된다.

대학이란 공간은 그렇다. 더 큰 사회를 마주하기 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누구는 지금을 즐기고자 하고 누구는 지금을 쫓고 쫓겨 자기 발전을 위해서 쓴다. 그들은 각자 사회의 압박을 받기도 하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압박을 주기도 한다. 성인이 되었으나 사회인이 되지는 못했고, 어림에서 벗어 나고자 하나 어린 것은 틀림없다. 여러모로 애매한 시기다.

필자 역시도 그 애매한 위치 속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다가오는 졸업, 어려워지는 전공 과목, 쏟아지는 과제와 한숨만 나오는

낭만의 전파

학점 속에서 여름이라는 계절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 밤에 잠 못 들게 하고 모기에 물려 신경 쓰이게 만들고 날은 더운데 에어컨은 차가워서 옷 입기가 귀찮은 계절, 그 뿐인 것이다. 매일이 비슷하다. 강의실과 도서관을 오간다. 집으로 돌아갈 때쯤이면 태양의 뜨거움은 이미 그 힘을 다했다.

사람은 참 신기하게도 이렇게 뻑뻑한 일정 사이에서도 자신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때가 있다. 필자가 하늘을 올려다보게 된 것은 해가 아주 짙은 날이었다. 해가 닿는 살이, 해로 인해 데워진 벤치가 따뜻하지만 머리카락을 간질이는 바람은 시원하다. 마침 배부르게 식사를 마치고 난 뒤 커피 한 잔을 딱 손에 든 뒤였는데, 그 벤치에 앉아 햇살과 바람을 만끽하며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의 행복감은 차마 활자로 표현하기조차 어려웠다.

그 순간 이후의 하루는 온통 완벽했다. 피곤하던 하룻길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였다. 따뜻한 햇살과 바람이 정말 많이 피어

있었다. 학교 앞 분홍색의 장미는 유독 꽃송이가 커다랗고 향이 달다는 걸 알게 되었고, 아파트 단지 주차장의 붉은 장미는 향이 덜하지만 줄기의 초록색과의 조화가 더욱 아름다웠다. 아무 생각 없이 신은 신발이 마침 운동화라서 버스가 집에 도착하기 전 미리 내려 20분 정도를 더 걸었는데 발이 편해서 좋았다. 심심함을 조금이나마 달래기 위해 들었던 노래는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과 너무 잘 어울려서 마치 내가 난관을 헤쳐 가는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곧 모든 일상이 행복이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아주 사소한 낭만 안에 잠들어 있다. 하늘을 보자. 눈을 감고 바람을 느껴보자. 혹은 거기에 실려 올라가다란 생명의 향기를 맡아 보자. 우리는 분명 행복을 위해 달리고 있다. 그 과정이 행복하지 아니하여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사라져가는 해로운 바이러스 말고, 낭만을 전파시켜 보자.

노유리(인문 3)

기자사령

- 임 부장기자 임혜은(인문 3) 이준혁(사회과학 2)
- 정 기자 박희진(인문 1) 정상혁(인문 1) 강승원(T 1)

- 퇴 수습기자 김지영(인문 1) 조예원(인문 1)

동정란

신재흠(교육대학원) 교수
신 교수는 지난 5월 31일 『서양 교육철학』 도서를 출판했다.

기차를 탄 모험가, 강한나 여행작가

‘백문이 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 백 번, 아니 수백 번을 들어도 눈으로 보는 것과 비교할 수는 없다. 경험만큼은 무시할 수 없다고 하지 않던가. 국내부터 해외까지 수많은 지역을 여행하면서 쌓은 견문은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다. 하지만 여행을 떠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비용의 문제가 있을 뿐더러, 무엇보다 일상에서 한동안 자리를 비우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행은 도전이며, 세계 곳곳으로 발걸음을 향하는 이가 있다. 기차를 타고 전국과 세계를 누비는 강한나(32) 여행작가다.



1976121520220607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강 작가는 ‘러시아’를 방문했다. 우리나라와 가까우면서도 서양권 문화를 가진 러시아의 매력에 이끌린 그녀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 올랐다. 처음으로 혼자서 여행을 떠난 그녀는 세계에서 제일 넓은 벌판을 가로지르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했다.

“횡단 열차는 관광객보다 현지인들이 주로 이용해요. 당시 6박 7일 동안 횡단 열차에 있었는데, 자고 일어나면 열차 안에 사람들이 바뀌어 매일이 새로웠죠. 하루는 시베리아의 사냥꾼과 보드카도 나눠 마신 적도 있어요.”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녀의 가치관은 여행의 본질과 일맥상통했다. 강 작가가 주기적으로 장기 여행을 떠나게 된 이유다. 실제로 그녀는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전까지는 매년 최소 1회 이상 해외여행을 다녀온 했다.

“저는 주로 몽골, 유럽, 러시아 등 시베리아 횡단 열차로 방문할 수 있는 여행지를 다녀왔어요. 특히 러시아는 매년 시간이 될 때마다 방문했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국토가 지구의 4분의 1버퀴를 차지할 만큼 땅이 굉장히 커요. 조금만 이동해도 현지의 대표 음식과 문화가 바뀌는 이색적인 여행지예요. 보통 한 나라에서 하나의 문화를 경험하는 것에 그치지만 러시아에서는 많은 문화를 동시에 배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유라시아 지역을 주로 방문하는 것 같아요.”

러시아에 대한 애착을 증명하듯, 강 작가는 ‘리얼 블라디보스톡’이라는 책도 출간했다. 이 책을 집필할 수 있었던 건 그녀의 전공도 한몫했다. 여러 차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하면서 지역에 대한 지식이 쌓여가는 와중에, 경영학 전공자로서 습관적으로 시장분석이 이뤄졌던 것이다.

“경영학과를 전공하다 보니 지역에 대한 시장분석이 빨랐죠. 지역에 대한 분석과 트렌드 분석을 통해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 어딘지 누구보다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어요. 제가 알게 된 정보와 경험치를 타인과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출판을 결심했어요.”

그러나 이후 코로나19로 출국이 어려워지자 강 작가의 여행도 중단됐다. 이는 그녀에게도 언제 상황이 나아질지 장담할 수 없는 건데다 어려운 고비였지만, 행선지를 국내로 변경해 여행의 공백을 메워나가는 것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강 작가의 국내 여행 필수 방문 코스는 바로 ‘전통시장’이다. 그녀는 지역의

분위기를 오롯이 담고 있는 전통시장을 통해 여행지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를 다니면서 새로운 경험을 많이 했어요. 해외처럼 문화적 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역의 특색에 매료되곤 하죠. 게다가 요즘 전통시장은 옛날과 많이 달라요. 청년이 운영하는 청년몰도 많고 예쁘게 꾸며둔 맛집도 모여있죠. 지역의 특산물까지 구경하면 그 지역을 전부 본 것과 같아요. 여행을 가면 그 지역의 시장을 꼭 방문했으면 좋겠어요.”

강 작가는 주로 혼자 여행을 한다. 어린 시절에는 누군가와 함께 가는 여행이 재밌게 느껴지곤 했지만, 여럿이 여행하다 보면 방문할 여행지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여행지를 더 넓고 깊게 보고 싶다면 홀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한다.

“여행을 하다 보면 내가 아닌 동행인을 고려한 일정을 소화하는 경우도 빈번해요. 반대로 혼자 여행을 하면 나에게 온전히 집중하며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죠.”

또한 혼자 여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강 작가는 여행지에서 의외로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언했다. 그녀는 일행과 함께 다니는 동반 여행과 달리 다른 여행객 혹은 현지인과 친해지면서 지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교류도 즐거운 추억이라며, 한 번쯤 홀로 떠날 것을 권유했다.

“혼자 떠나는 사람들끼리 교류하면서 현지의 정보들을 알아가기도 해요. 특히 사람과의 만남을 좋아한다면 게스트하우스에 묵으며 각국에서 오는 여행자들과 추억을 쌓는 것을 추천하고 싶어요. 영어가 유창하지 않아도 소통은 되거든요.”

한편 그녀가 여행 계획을 세울 때는 ‘여유’를 중점으로 둔다. 강 작가는 방문할 지역의 필수 코스인 랜드마크를 제외하면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지 않는다. 계획을 너무 체계적으로 세운다면 일정을 소화하는 것에 급급해 여행을 온전히 즐기기 어렵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으로 그녀는 도보를 주로 이용한다.

“꼭 봐야 할, 가야 할, 먹어야 할 것들만 정한 채 자유롭게 움직이는 편이에요. 너무 틀에 박힌 여행을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죠. 대중교통을 타고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걸어서 다니는 걸 선호하는 편이에요. 걷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나만의 장소를 찾을 수 있어요.”

또한 강 작가는 이번 여름여행을 계획하는 대학

생에게 ‘학생증’을 챙길 것을 당부했다. 오직 학생이라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한 두 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녀는 여행에서 학생증은 ‘만능 패스’라며, 경우에 따라 최대 5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통비가 부담스럽다면 ‘내일로’의 이용을 추천했다. 내일로는 지정된 일수만큼 무제한으로 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이다. 유효기간 안에는 기차를 몇 번이고 탑승해 어디든 떠날 수 있다.

“저는 대학생 때 내일로를 많이 애용했어요. 방학만 되면 내일로를 끊어 전국을 여행하곤 했죠. 기차는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있어서 큰 창으로 달라지는 바깥 풍경을 볼 수 있다는 재미가 있죠.”

강 작가는 기차를 타고 방문할 수 있는 국내 여행지 중 ‘삼천포’를 추천했다. 특히 삼천포의 사천시를 추천하며, 영화관을 꼭 둘러보라고 조언했다. 삼천포 사천시에는 상영관 내부가 통유리로 돼 있어 바다가 보이는 국내 유일의 영화관이 존재한다.

“영화가 상영될 때만 유리에 커튼을 쳐요. 오후 3시나 4시쯤 방문해 영화를 보면 끝나는 시간이 일몰과 겹치게 되죠. 이때 커튼이 열리고 펼쳐지는 노을과 바다 풍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장관이에요. 영화를 본 후 해상케이블카를 타고 야경을 바라보는 것도 큰 힐링이 될 거예요.”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조건 중 하나를 ‘시간’이라 생각하는 강 작가는 여행하기에 ‘청년’은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고 답한다. 애써 시간을 만들지 않더라도 비교적 쉽게 어디론가 떠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졸업 후 일을 하다 보면 여행을 가기 위한 지금은 넉넉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없어요. 대부분 연차를 써도 최대 일주일일죠. 돈이 있다고 무작정 여행



사진 제공 : 강한나

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행 기간에 따라 장소도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여행 일정이 짧은데 무작정 해외로 떠나면 비행기 안이나 공항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단기 여행이라면 국내의 한 지역을, 장기 여행이라면 러시아나 몽골처럼 국토가 넓은 해외 국가를 추천하고 싶어요.”

강 작가는 여행을 누구에게나 주어진 권리로 본다. 동시에 요즘 청년들이 여행을 어려워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청년이 장기 여행은 아닐지라도 가까운 곳에, 더 많이 떠나길 바란다.

“하루나 이틀 정도의 짧은 여유라도 여행을 할 수 있어요. 국내에도 떠날 곳은 많으니 당장 엄청난 여행을 가야겠다는 생각보다, 여유를 가지고 짧은 여행이라도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더 큰 기회가 생기니까요.”

김지윤 기자 jzhey@naver.com



사진 제공 : 강한나

▲삼천포 사천시에 위치한 바다가 보이는 통유리 영화관



사진 제공 : 강한나

▲약 9,288km의 철도를 달리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